

2010년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주요 실천방안

일시 : '10. 7. 15(목), 15:00 - 17: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434호실)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주요 실천방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능동적 대응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교육을 통해 배출한 인력으로 우리 사회는 혁혁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갈수록 ‘창의성 교육’의 강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현장에 창의성 교육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더불어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해 ‘2009년 교육과정 개정’ 및 올해 초의 ‘창의·인성 기본방안’ 등을 통해 창의성 교육이 학교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에 이어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은 올해 ‘창의성 교육 신장’을 논의의 방향으로 정하고, ‘왜 창의 인재인가’, ‘학교 실천 사례에서 창의성을 보다’ 등 두 차례의 포럼을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자리에서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주요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여러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프로그램 일정

- 포럼주제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주요 실천방안
- 일시 : '10. 7. 15(목), 15:00 ~ 17:10
-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434호실)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 세부 일정

좌장: 박태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10분)	인사말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15:10 - 16:15 (65분)	학교현장 실천사례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영섭 교감 (인제 신남중 · 고등학교)
		전경열 교감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
	내가 경험한 입학사정관제	오대금 학생 (부산대학교 1학년)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개선방안	김승보 박사 (직능원 진로정보센터 소장)
16:15 - 16:40 (25분)	지정 토론	이병성 학부모 (학부모모니터단)
		김병숙 교수 (경기대학교)
		김세종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김영곤 과장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
16:40~17:10 (30분)	종합토론	

사 례 1

학교 현장 실천 사례 1
-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

■ 이 영 섭 교감
(인제 신남중·고등학교)

사 례 1

**주제 중심의 통합
'과제연구' 활동 편성·운영1)**

이 영 섭 교감
(인제 신남중·고등학교)

I. 학교 현황 및 여건 대처

1. 학교 현황2)

가. 학생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중학교	28		17	17	17	18	97
고등학교	31		30		28		89

나. 교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턴 교사	영어 행정인턴	원어민 교사	계
중학교		1	10	1	3		1	16
고등학교	1		9	1	1	1		13
계	1	1	19	2	4	1	1	29

- 1) 본교에서는 <학교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2009. 06. 11)> 중,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적극적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교육과정과 자율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 성격인 '과제연구' 활동을 2010학년도 중·고 공히 전교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음.
- 2) 본교는 농촌 면지역의 과소규모 중·고 병설학교(통합학교)로 교장, 교감은 겸임이며, 중·고 통합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2. 학교 여건에 대한 대처

가. 지역사회 특성

- 인구 약 4천명을 밑도는 면지역으로,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혜택이 전무하여 사고 영역이 좁고, 특히 44번국도의 우회 신설로 경제가 침체되어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편이어서,
 - ☞ 지자체 차원의 거시적 측면의 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며, 방과 후 소질계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서순화 활동과 하교 차량 제공 및 교육적·문화적 복지 수혜 방안으로 대도시 문화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음.

나. 학생 특성

- 한 부모 및 기초 수급 가정 등 결손 가정이 대다수(60%)로 학습 환경이 극히 열악하며, 폐쇄적인 자연환경 및 문화 혜택 결여로 면학에 소극적이고, 학력 우수자는 조기에 도시 지역으로 진학하여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이 많은 편이어서,
 - ☞ 중학교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지정으로 맞춤형 수준별 이동수업(국,영,수,사,과 5개 교과)과 정기고사 시, 보충과정 학생을 위한 수준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대폭 확대·운영하고 있음.
 - ☞ 고등학교는 ‘B-2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정으로 영어과 맞춤형 수준별 이동수업(N+2)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영어과 수준별(보충, 기본, 심화과정) 학습자료 제작 활용은 물론, 대수능 대체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교과 이수단위를 42단위로 대폭 확대·운영하고 있음.

다. 학부모 특성

-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유지에 전념하는 가정이 많으며, 한 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의 증가로 건강한 가정은 소수이고, 학교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편이어서,
 - ☞ 유관 기관의 협조로 장학 기금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감수성 훈련 과정’을 월 1회 운영하는 등 학부모와의 학교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부모 교실 및 학부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교육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II. 본교 ‘과제연구’ 활동의 성격 및 목표

1. ‘과제연구’ 활동의 성격

일종의 프로젝트 학습이며, 보통교과목 등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접 탐구하도록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습자는 개인적 관심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특정 영역을 자기 주도적,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에, 담당교사는 과제 연구의 의의와 방법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는 개인적 관심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특정 세부 영역을 자기 주도적, 창의적으로 심층 탐구하고 학습하거나, 모둠별로 공동 토론 및 연구를 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한다.

예컨대, 세계 정치와 경제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를 연구할 경우,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국제적 안목과 소양을 습득하게 하고, 과제 연구 및 발표와 논문 작성 능력 배양을 통해 21세기 지식 사회에 필요한 지식 생산과 선별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의 4개 영역을 ‘과제연구’ 활동 부서 별로 계획·운영한다.

2. ‘과제연구’ 활동의 목표

- 가. 과제 연구의 방법을 습득하고, 실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탐구 자세를 기르며,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다.
- 나.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정세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 자료의 수집·활용 능력 및 당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석 능력을 기른다.
- 다. 연구 과제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심층 연구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안목과 소양을 기른다.
- 라. 학습 그룹별 조사 및 탐구를 통해 공동 학습 역량과 팀워크를 배양한다.
- 마.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표 및 토론 역량을 키운다.
- 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4개 영역을 ‘과제연구’ 활동 부서 별로 계획·운영하며, 봉사활동은 지역자원지도를 적극 활용한다.
- 사.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http://www.edupot.go.kr/>)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누적(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 및 진로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Ⅲ. ‘과제연구’ 활동 편제 및 부서 현황

1. ‘과제연구’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표

가. 중학교³⁾

구 분	기준 수업시수	증감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과제연구)	306		51	51	51	51	51	51	306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개요 ■ 매 학기 51시간(주당 3시간) 운영 ■ ‘과제연구’ 영역으로 7개 과제를 학생 희망에 의거하여 무학년으로 편성·운영 ■ ‘과제연구’ 그룹별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을 모두 편성·운영하며,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개인별 및 그룹별 포트폴리오를 제작함으로써 입학사정관 제에 대비할 수 있음.									

나. 고등학교⁴⁾

구 분	필수이수 단위수	증감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과제연구)	24		4	4	4	4	4	4	24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개요 ■ 매 학기 4단위(주당 4시간) 운영 ■ ‘과제연구’ 영역으로 8개 과제를 학생 희망에 의거하여 무학년으로 편성·운영 ■ ‘과제연구’ 그룹별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을 모두 편성·운영하며,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개인별 및 그룹별 포트폴리오를 제작함으로써 입학사정관 제에 대비할 수 있음.									

3) 2011학년도 편성표로 2010학년도에는 전 학년이 매학기 34시간(주당 2시간) 운영함.

4) 2011학년도 편제표로 2010학년도에는 전 학년이 매학기 2단위(주당 2시간) 운영하고 있음.

2. '과제연구' 활동 부서 현황

가. 중학교

연번	부서명	활동 개요	담당교사	학생수	활동장소
1	사회과 NIE학습	- 개인별로 신문 기사 읽고 스크랩하기 - 느낀 점 쓰기 - 발표하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1	1-1
2	1년생 식물 기르기	- 1년생 식물을 2가지 기르고 관찰하기 - 특징을 기록하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2	과학실
3	과자의 첨가물 조사하기	- 즐겨먹는 과자에 첨가된 내용물 조사 -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8	2-2
4	창작 맨손체조	- 기존의 체조를 익히기 - 모듬별 창작 맨손체조 고안하여 동영상 제작 및 발표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3	청솔관
5	영상 미디어 편집	- 주제에 따른 영상물 촬영 - 영상물 편집 기능 익히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4	도서관
6	독서와 표현	- 책을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자료 정리하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4	3-1
7	의사소통 훈련	- 자신과 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 기르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5	2-1
계				97	

나. 고등학교

연번	부서명	활동 개요	담당교사	학생수	활동장소
1	영화 만들기	- 영화의 특성 이해 - 공동 창작을 통한 시나리오 작성 - 영화와 교육 연극의 만남 - 영화 연기의 기본 - 촬영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1	1-1
2	스포츠 동영상 토론반	- 스포츠 동영상을 통한 개인의 작전능력, 지도방법 등 다양한 스포츠의 친근한 접근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2	과학실
3	역사신문 제작	- 각 시대별 역사신문을 제작하여 역사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0	3-1
4	문학 영상물 제작	-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작품과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 - 시를 감상하고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을 스토리로 제작하여 뮤직 비디오 만들기			

연번	부서명	활동 개요	담당교사	학생수	활동장소
4	문학 영상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창작하여 시화 작품(컴퓨터 활용) 만들기 -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작품과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 - 시를 감상하고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을 스토리로 제작하여 뮤직 비디오 만들기 - 시를 창작하여 시화 작품(컴퓨터 활용) 만들기 - 소설을 읽고 주인공의 정서를 표현한 시를 창작하여 시화 작품 만들기 - 영상 소설 만들기 - 문학 작품 광고물 만들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0	2-2
5	시사 토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와 연관된 주제에 대해 진학 희망 계열이 일치하는 학생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시사적 주제를 선정하여 글을 작성하고 토론 - 대입 면접 예상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글을 작성 후 프레젠테이션 제작 - 면접 태도와 답변 요령 및 화법 등 토의 - 자신이 작성한 글과 프레젠테이션, 토론 내용 등을 정리하여 관련 카페에 탑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0	청솔관
6	과학 실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실험 중 해부학 실험하기 - 간단한 세포 관찰에서 시작하여 어류, 조류, 포유류 등 고등동물의 외부 및 내부 구조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각 생물들의 특징을 비교하기 - 여러 생물의 내부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인간 신체에 대한 이해를 통한 호기심 갖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0	2-1
7	WBI와멀티미디어를활용한 UCC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반 WBI를 익히고 UCC를 통해 창조성과 표현력을 극대화 시킨다.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얻는 자에서 주체적인IP(Information Provider) 역할자로서의 역량으로 변화를 꾀한다. - 일관화된 학교생활을 UCC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 21C 지능적이고 창의성 있는 미래형 인간을 육성한다. - 긍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배운다. - 다양한 사회현상과 시각을 UCC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 인터넷 공간을 UCC활동으로 연계하여 과제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 서로 간의 작품을 공유하고 나와 다른 세계의 미학을 배운다.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0	도서관

연번	부서명	활동 개요	담당교사	학생수	활동장소
8	국제 비교문화 및 지역 이해반	- 오늘날 세계를 보는 분석 시각 갖기 -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 형성 연구 - 지역사회 봉사활동	○○○	16	3-1
계				89	

IV. ‘국제 비교문화 및 지역이해’ 활동반 [예시]5)

1.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약
과제 연구의 의미와 방법	과제 연구의 의미와 다양한 과제 연구 방법을 알고 실제로 과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 과제 연구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연구의 의미 ◦ 과제 연구의 방법 ◦ 과제 연구의 대상 ◦ 과제 연구의 평가
오늘날 세계를 보는 분석 시각	오늘날 세계를 바라보는 분석 시각을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주의 시각 ◦ 자유주의 시각 ◦ 현실주의 시각 ◦ 구조주의 시각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 형성 연구	새로운 안보 개념의 등장과 같은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국제 정치 현실을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 ◦ 새로운 이론들 ◦ 세계의 안보 동맹 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연구	오늘날 세계 분쟁 지역 현황과 국제 테러 실태를 조사하고,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문화적 갈등 양상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분쟁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탐색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분쟁 지역 ◦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 ◦ 국제 연합과 지역 기구의 역할 ◦ 국제 테러 문제
인권과 주권의 문제 연구	인류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권 보호와 항상 문제는 전통적인 국가 주권 문제와 갈등을 야기한다. 오늘날 세계 인권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인권 보장 체제를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주권의 대립 ◦ 세계 인권 문제 ◦ 세계 인권 보장 체제

5)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비교문화 및 지역이해’ 활동반의 활동 내용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국제적 안목과 소양을 습득하고, 과제 연구 발표와 논문 작성 능력 배양을 통해 21세기 지식 사회에 필요한 지식 생산과 선별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 사례임.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 형성 연구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쟁과 협력 관계를 파악하고 탐구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 ◦ 자원 문제와 남북문제 ◦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책
국제기구의 역할 연구	오늘날 세계 정치·경제 체제에서 국제 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정치 질서와 국제 연합 ◦ 세계 경제 체제와 브레턴우즈 경제 기구 ◦ 지역 기구와 세계의 정치·경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자원지도 활용

2. 교수·학습 방법

- 가. 지도 교사와의 협의 아래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제시된 단원 가운데 한 개 이상 단원을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설계하도록 지도한다.
- 나. 학기 중간에 해당 과제 수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과제 연구의 접근 방법을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 다.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조장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현장 방문 조사, 견학 학습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라. 정확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의 검색·처리·활용 기법과 여러 사회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 마. ‘법과사회’ 선택과목과의 관련성에 유의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평가

- 가. 과제 설계, 중간보고서, 과제 수행 결과 발표, 최종 보고서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과제 수행 과정과 과제 수행 결과를 동시에 평가한다.
- 나. 과제 수행 결과의 독창성과 이의 활용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 다. 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를 활용한다.
- 라. 학습자 신변으로부터 여러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수집,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확인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의 평가를 중시한다.
- 마. 교사 관찰,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을 활용하여 집단 활동·토론 참여와 전개 능력, 다른 견해의 존중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정도를 평가한다.
- 바. 개인별 혹은 소집단별 학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종합 보고서를 통해 과제 능력 및 다양한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V. 기대 효과

본교는 병설·통합학교로 중·고등학교 공히 ‘과제연구’를 운영함으로써 2010학년도 중학교 입학 학생의 경우, 6년 간(12개 학기) 학교 및 학생·학부모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학교 차원에서의 대비 효과

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매 학기(학년)별 ‘과제 연구’ 활동 편성·운영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재능과 소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다.

- 입학사정관 제도도 결국은 드러난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교 입학 후, 6년간(12학기)의 과제연구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
-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참여 자세 및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 상황과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우리학교 만의 특성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 학생에게 풍부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교육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학교 소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관련 학교 프로파일(Profile)’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대학 진학 1단계 Level Up 달성]

2. 학생 및 학부모 차원에서의 대비 효과

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할 수 있다.

- ‘과제연구’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겪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을 제시할 수 있다.

나. 6개 학년(12학기) 동안 6~12과제를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맞는 일관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 입학사정관들은 여러 방면을 기웃거리는 토틀런트보다는 한 방면에 집중적으로 끼를 드러내는 학생을 선호하는 바, 학생 자신의 진로에 따른 일관된 과제연구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다.

다. 동기 → 과정 → 평가의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진로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과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VI. 제언

1. 본교에서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대처 계획

가. 다양한 활동 부서 개설 및 예산확보 필요

- 본교는 중학교 7개부서, 고등학교 8개 부서로 부서별로 10~18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바,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 부서 조직의 확대가 필요함.

☞ 부서 확대 조직·운영

현재, 정규 교사 중심의 조직·운영 체제를 2학기부터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1학년도부터는 창의·인성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

영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부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2010학년도 추경 및 2011학년도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 본 과제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학교급별 7~8개 부서를 세분화 하여 학생 선택 중심의 15개 부서 이상을 조직·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나. 프로젝트 학습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4 영역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대

○ 본교가 프로젝트 학습 형태의 ‘과제연구’를 지난 3월 시행할 즈음, 대부분의 교사가 ‘과제연구’의 편성·운영 과정 및 성과에 의구심을 가졌었던 바, 본 ‘과제연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연수가 필요함.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및 적용’과 ‘대학입학사정관계’, ‘포트폴리오 제작’ 등의 다양한 연수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2. 타 학교 일반화 방안

가. 본 사례는 농촌 면지역의 과소규모 중·고 병설학교(통합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중·대규모 학교에서의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그러나 중·대규모 학교의 경우, 비교과 영역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활동 중심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한다면 본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단위학교별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를 개설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창의-인성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 례 2

학교 현장 실천 사례 2
-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

■ 전 경 열 교감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

사 례 2

창의적 체험 학습의 학교활동 사례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Ⅰ 전 경 열 교감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 활동의 활성화
- 현장과 연계된 고교 교육의 다양화
 - 고교 교육을 학교별로 다양화 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각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물적, 인적자원, 지역소재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잠재하고 있는 소양을 미리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함.
- 학생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다양하고 수준높은 영어, 수학·과학 교육 실시
 - 탐구 및 체험활동 강화를 통한 체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알찬 수업 제공
 - 자연계열 선택 비율 증대로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현상을 해소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수학·과학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융합적 과학소양을 함양하는 토대 마련
 - 향후 진로 설정에 미리 대비하여 우수 인재의 현장 체험 경험 증진

II. 창의적 여성 기술 우수 인력의 필요성

○ 영어, 수학, 과학 교육의 강화

- G20 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하여 열리는 IT 강국의 기술 한국사회에서 섬세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Leading Country 개념으로 부각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선진국 형으로 우리나라가 리드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이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공계열의 우수인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함.
-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인력은 이제 남자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뿐 아니라 여성 기술 인력 CEO 들이 늘면서 당당하게 한국의 기술 산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여성이 훨씬 섬세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모계사회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이 가지는 재능이 부각되고 선진국화 되면서 여성이 갖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고 본다.
- 이런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0 수능 성적 공개 자료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모든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표준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언어영역(남학생:98.6, 여학생:103.1)과 외국어 영역(남학생:98.4, 여학생:102.2)의 비율로 남학생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수리(가)와 (남학생:100.5, 여학생:100), 수리(나)의 경우(남학생: 99.8, 여학생:99.8)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남녀학생이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최고 수준의 기술 한국의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기본 바탕으로 한 수학, 과학의 집중 수업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 여성 인력을 중등교육에서 기초 인력으로 길러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명하다.

III.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R&E: research & education) 을 통한 수학, 과학, 영어 체험 교육과 연구 교육 활성화

1. 추진목적

- 가. 영어, 수학, 과학교육의 수준 높은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음
- 나. 대학과 연계된 영어 체험 교육 활성화로 영어 능력 기반 확보
- 다. 의학, 이공과정 특성화를 통한 의학, 이공계 적성 학생 최대 확보
- 라. 이공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이공계 대학 진학률 제고
- 마. 영어, 수학, 과학교육의 고교-대학 연계 특성화 운영을 통한 학생 욕구 만족

2. 운영방안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R&E) 교육 활성화

-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활성화하고 각 교과의 심도있는 진로 체험 교육을 통해 중등교육의 질을 한단계 올리기 위한 체험 수업으로 진행
- 서울 3개 대학(한양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과 협약식을 갖고 대학과 고교에서 상호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함
-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 과학 방과 후 체험 교육(연 평균 40시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자기주도 학습방법과 병행하여 진행하며 매회 체험별로 연구하고 기록지를 만들면서 교수-교사인증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별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정해야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인별로 1:1멘토링을 해주고, 대학과는 교수-교사 공동 연구방식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이화여대 영어교육과와 영어 체험교육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졸업후 대학에서의 영어 수업을 원활히 해주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여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세부계획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협약체결 여부	전담교사	예산액
고교-대학간	한양대 자연과학대 수학과	0	한0근	25,570,000
고교-대학간	한양대 자연과학대학	0	서0영	
고교-대학간	한양대 자연과학대학	0	진0태	
고교-대학간	숙명여대 이과대학	0	진0태	
고교-대학간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0	천0정	11,570,000
고교-기업체간	여성 경영인 총 연합회		박0수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연계 프로그램

- 영어 연극동아리반 프로그램 (이화여대 UNI - 상일여고 S.E.D.C)

1) 추진 개요

이화여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와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과 체험 및 영어 관련 체험 (English Drama: 영어연극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내재된 재능을 발휘하고 자신의 내적향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 되며, 대학생들과의 멘토 교류를 통해 영어교과와 관련된 흥미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준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이외에 영어 관련 입학사정관제 및 수시 전형 준비 과정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 관련된 분야에서 학생들이 실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목적

- 영어 관련 분야 (English Drama)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확대
- 영어로 말하기 연습에서 드라마 제작
- 입학 사정관 제도와 수시 특별전형에 대한 준비
- 고교 및 대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대학 전공과 관련한 진로 설정 준비

3) 프로그램 명칭

- Sangil English Drama Club(S.E.D.C)

4) 프로그램 내용

- English Drama에 대한 공동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discussion한다.

<표> 2010 영어드라마반 연구과제

학기	수업 내용
1학기	① 다양한 영어 극본 reading material 제시(이화여대 English Drama 동아리와 공동연구) - 단편 소설을 극화한 대본 - 짧은 이야기(이솝 우화)를 극화한 대본 ②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기 ③ 각 조에서 한 편씩 선정하여 부분 각색하기
2학기	① 각색하여 완성한 대본을 조별 연습하기 ② 대본을 암기하여 드라마 완성하기 ③ 조별 드라마 발표하기 ④ 가을 축제에 우수 조 발표하기

- English Drama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생-고교생 멘토수업으로 진행한다.
- 상일여고 English Drama 동아리는 5개조로 나누어서 실행하며 1조당 대학생 멘토 1인이 관장한다.
- 연 1회 English Drama 연극 공연을 하거나, S.E.D.C Soliloquy Contest를 갖고 순위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긍심을 키운다.

5) S.E.D.C Soliloquy Contest

- 우수상(1품)-고교-대학프로그램(이화여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SEDC Soliloquy Contest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학생
- 수상기준-영어연극반중 contest에 참가하여 1차 예심을 통과한 10명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에게 상일 3품제 중 1품을 수여

6) 프로그램 실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7) 추진 일시

- 2010년 3월 - 12월 말 학기중과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
- 월 1회 3주 토요일 계발활동시 이화여대 영어연극(UNI)동아리와 공동연구 및 멘토 수업 연
간으로 실시
- 월 1회 2,4주 토요일 중 선택하여(상호 동의하에 날짜를 정한다) 연 5회 공동 연구 및 멘토
수업 실시
- 2)와 3)을 합하여 연 12회의 계발활동과 관련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은 이화여대 영어연극(UNI)동아리와 날짜를 상의하여 summer camp와
winter camp로 운영하며 대학생 멘토방식을 취한다.

□ 방학중 UNI - S.E.D.C 캠프 운영 방안

(1) 목적

영어 캠프를 통해 대사읽기 훈련 및 연극 연습을 집중적으로 멘토링 받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하고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성을 찾아본다.

- 자신이 맡은 역할의 대사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 학년 말에 실시 예정인 English Soliloquy Contest를 대비한다.
-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대사 소화 능력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킨다.

(2) 대상: 상일 영어 연극반 전원

(3) 일시 : 2010.8.16~18 (월~수) 9:00~11:30

(4) 일정

- 9:00~9:30 UNI공연 작품 동영상 청취
- 9:30~10: 20 대본 읽기 연습 및 Group mentoring
- 10:20~10:40 간식 time
- 10:40~11:30 Group mentorin

8) 영어 드라마 대본 참고 사이트

- <http://www.eslprintables.com/printable.asp?id=113797>
 - <http://42explore.com/skits&plays.htm>
 - <http://www.lazybeescripts.co.uk/YouthTheatre/Index.htm>
 - http://www.simplyscripts.com/plays_a_h.html
- : 각 사이트들에서 학생들에 수준에 맞는 대본을 바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다.

9)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실시 초기, 중간, 말에 각각 수업 참관을 통해 평가
- 조별 발표 및 축제의 참가를 통해 평가
- 학기 말에 참여한 학생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여 만족도 평가
- 학기 말에 참여한 대학생 면담 및 설문지로 개선점 파악

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 캠프

-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교수님 초청 특강 -

1) 추진 개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영문학 고전 작품 강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영어 고전 작품 강의를 통해 영미권 언어, 문학, 문화를 배우고, 인문학의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능력 및 영어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다.

2) 목적

- 문학작품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영미 문학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 영미권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문학 작품을 읽으며 배경 지식을 쌓는다.
- 작품과 강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 학문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프로그램 명칭

- 교수님 초빙 영문학 특강

4) 프로그램 내용

- 학생들이 읽을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단원 별로 분리하여 강의한다.
- 단원 별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느낌을 적도록한다.
- 학기 말에 독후감상 및 과제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수상한다.

5) 참여 대상

- 1, 2학년 재학생 중 영어에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학생
- 영어 관련 학과로 진로를 설정하여 적극 참여할 학생

6) 프로그램 실시 장소

- 본교 영어 전용 교실

7) 추진 일시

- 1학기: 2010년 3월 - 6월 말(월 2회 토요일 휴무일 6회)
- 2학기: 2010년 9월 - 11월 말(월 2회 3주 토요일 휴무일 6회)

8) 기대효과

- 문학작품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영미 문학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다
- 작품과 강의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입학 사정관계도 및 수시 특별전형에 준비할 수 있다.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미리 설정해 볼 수 있다.

9) 프로그램 평가

- 매 차시 수업 참관을 통해 평가
- 학기 말에 참여한 학생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여 만족도 평가
- 학기 말에 참여한 대학생 면담 및 설문지로 개선점 파악

다. 과학 실험 체험 학습

-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

1) 추진개요

- 고교 수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대학에서의 수준 높은 과학 실험을 통하여 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자 함.
- 대학과의 연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화 과학 탐구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중심의 창의적 수학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 학생 자율탐구활동 지원
- 대학교수, 조교, 본교 교사 공동 연구의 과학실험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계발할 수 있다.
-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하여 탐구 : 실험기구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보고서 작성 요령을 익히며 결과를 토론한다.
- 대학에서의 실험실 이용 : 대학 교수-과학교사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의식 이론수업과 실험수업을 연계하여 흥미를 유도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한다.

2) 활동내용

- 숙명여대 이과대학 :

- 1학년 과학기초실험반 동아리 연계 실험
- 숙명여대 과학 봉사동아리를 활용한 연계 실험 수업
- 숙명여대 이과대학 조교와 상일여고 과학교사 연계 실험 실습 강화 : 학기당 2회씩 총 4회 실시로 과학 교사의 실험실습에 대학 조교 연계

-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 2학년의 과학 심화 실험반 동아리 연계 실험
- 2학년 자연계열반 전원(120명)이 체험 활동 실험으로 진행.

3) 추진일시

- 과학 동아리반 : 과학기초실험반과 과학심화실험 동아리반의 실험은 연 7회의 계발활동 시간에 과학교사와 대학 조교의 선행실험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대학 실험실에서의 실습은 연 4회 내에서 운영한다.
- 2학년 자연계열반 체험활동 : 대학실험실에서의 과학실험 체험활동은 연 1회로 1학기말에 운영한다.

4) 프로그램 평가

- 과학 동아리반인 경우 개인별 심화 실험 활동지를 작성하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 연간 활동지를 따로 작성한 후 연 1회 활동 보고에 대한 그룹별 발표회를 갖는다.
- 대학 진학시 관련된 학과의 실험 활동지일 경우 개인별 실험과일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한양대 과학실험 캠프 일정표(2010. 7.9 실시)

한양대-상일여고간 연계 과학 실험 일정표 (2010. 7. 9)

시간	내용	비고
~ 9:30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 도착	
9:30 ~ 09:50	조편성 및 소개	
10:00 ~ 11:30	실험 수업1	각반이동
11:30 ~ 13:00	점심 시간	생활과학대7층식당
13:20 ~ 14:50	실험 수업2 (공개참관수업)	공개수업 (542호생물실험실)
15:00~16:00	참관 교수-교사 강평회	2층 회의실
16:00~	귀가	

※한양대 - 상일여고간 연계 과학 실험

- 공개 연구 실험시 해당 학과 교수님과 상일여고 교사의 공동 실험 설명으로 실험 시작
- 1반당 4개조로 편성하여 각조마다 한양대 조교 4명의 지휘로 실험 실시
- 연구 실험 2주전에 상일여고 교사와 한양대 교수,조교간 실험 전 미팅으로 예비 실험 실시
 - 실험반 - 상일여고 2학년 자연계열반 120명 전원.
 - 실험장소 - 1층 화학실험실(114호), 5층(542호)과 6층(637호) 일반생물학 실험실
 - 실험시간 - 각 1시간 30분씩
 - 인근 지역 과학교사 공개 참관수업 - 오후 실험(생물)
 - 공개 수업 실험 제목 :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한 주화성 실험”
 - 참관 교사 강평 및 회의 시간 - 오후 3시~ 4시
 - 강평회 장소 - 자연과학대 2층 학장실 옆 회의실
 - 강평회 후 과학교사 소감 : 인근 6개 고등학교 과학교사 참관 수업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자연계열반 전원에게 체험실험을 시킨 부분이 학생들에게 과학 분야를 체험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달란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 함

※ 과학 실험 수업

- 주제
 -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한 주화성 실험” (생물)
 - “식물의 기공개폐 실험” (생물)
 - “아스피린 제조” (화학)

라. 한양대학교 수학과 - “수학의 세계” 특강

1) 추진개요

- 수학심화반 특강 수업은 10명의 한양대 수학과 교수님들이 각각의 주제를 마련하여 25명의 수학 심화 동아리반 학생이 무학년제로 참여하여 그동안 교과서 속에서만 머물던 수학을 기본 원리학습을 통해 체험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수학 수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 수학심화반 수업은 계속해서 체험전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올해 수학체험전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수학체험 발표 대회 형태로 운영하기로 함.

2) 활동내용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
 - 매회 특강별로 개인별 학습지를 작성하여 묶어놓는다.
 - 매회 특강 수업을 거둬하는 동안 수학 과목의 관심도에 따른 느낌을 적고 개인별로 작성지를 만들어 수학교사 또는 수학 특강교수(한양대 수학과)와 전공에 대한 상담을 한다.
 - 개인별 관리교사 - 수학과 이00 선생님
- 수학 심화반 계획서

< 특강날짜 >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월/일	4/10	5/8	6/5	6/12	6/26	7/10	9/11	10/9	10/23	11/13
담당 교사										

< 특강시간 및 장소 >
9시30분~11시30분 (1학년 11반 교실)

< 진도계획 >

- 1회차 : 김 00 교수 (대수학)
- 2회차: 변 00 교수 (기하학)
- 3회차: 장 00 교수 (응용수학-수치해석)
- 4회차: 허 00 교수 (해석학)
- 5회차: 박 00교수 (통계학)
- 6회차: 김 00 교수 (정수론)
- 7회차: 장 00 교수 (해석학)
- 8회차: 차 00 교수 (통계학)
- 9회차: 박 00 교수 (해석학)
- 10회차: 송 00 교수 (응용수학-암호론)

3) 추진일시

- 1학기 6회, 2학기 4회 실시 , 12월 방학전 수학체험전 발표

4) 프로그램 평가 :

- 수학 심화반인 경우 개인별 심화 실험 활동지를 작성하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소 그룹을 만들어 연간 활동지를 따로 작성한후 연 1회 활동 보고에 대한 그룹별 수학 체험 발표전을 갖는다.
- 수학체험전 발표 대회에 참여하는 팀은 일상생활에서 문제 상황을 수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수학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 대학 진학시 관련된 학과의 실험 활동지일 경우 개인별 실험과일을 제출할 수 있다.

4. 각종 체험 활동 예산 총액

프로그램명	분야	산출 근거	예산(만원)
대학-고교간 연계 프로그램	수학 심화반	대학 교수 강사료(13회×20만원) + 관리비(13회×4만원)	400
	한양 대학교 연계 실험	대학-고교간 연계 프로그램 진행 및 참가보조비 (과학실험반 20명 × 실험비 40,000원)	250
	숙명여자대학교 연계 실험	대학-고교간 연계 프로그램 진행 및 참가보조비 (과학동아리 20명 × 실험비 40,000원)	250
	한양대 과학캠프	대학-고교간 연계 프로그램 진행 및 참가보조비 (2학년 이공계 120명 × 실험비40,000원)	600
	이화여대 영어동아리반 연계 활동	교수 특강비 + 영어연극동아리반 지원비(대학생 멘토비용)	557
	이화여대 영어 캠프 운영	교수 특강비 + 영어 전문서적 구입비+ 영어멘토 대학생 비용	600
	고교-대학 총액		2,657

프로그램명	분야	산출 근거	예산(만원)	
체험 활동	과학체 험	과학 실험 시연 콘서트	과학 실험 시연 콘서트 준비 및 시연비 (과학 동아리반 실험보조비)	50
		천문 과학 캠프	천문 과학 캠프 참가비 보조(캠프희망자40명)	100
		갯벌 생태 탐사	갯벌 생태 탐사 참가비 보조 (1학년과학실험기초반)	80
		서울대 농생명 공동기기원 생명 과학 실험 체험	서울대 생명과학 실험 참가비 보조	80
		원자력 병원 인턴쉽 체험	원자력 병원 인턴쉽 및 실험 실습 보조비	30
	환경체 험	중랑구 물 재생센터 견학	학생 관리비	15
		암사 정수장 견학	학생 관리비	15
특강	초청강연	과학 전문 강사 초청 강연비 (1회) + 환경 전문 강사 초청 강연비 (1회)	70	
실험조교	숙명여대 실험 보조 조교	학기당 2회 실험보조 조교 비용 (30,000원 × 2명 × 4회)	30	
추진비	교재비	각종 교재 제작비	200	
	협의회 및 예비비	협의회 및 예비비	330	
총 액			3,657	

IV. 고교-기업체간 연계

가. 연계 기업체명

- SBS 방송국
- 밀레네엄 서울 힐튼호텔 트레이닝 센터

나. 주요내용

-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
- 견학 및 탐방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 현장을 체험하고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만족할 결과를 갖게한다.

다. 활동계획

- SBS 방송국 견학 및 체험 활동-(2010.07.13)
- 밀레네엄 서울 힐튼 호텔 견학 및 체험 활동-(2010.08.16)

V. 교과별 체험활동 계획

1. 수학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영역

운영 내용

계발활동 : 수학문제제작반, 수리논술반 등 운영
 행사활동 : 외부강사 초청 강연회, 수학경시대회

프로그램 내용		운영 내용
교과	수리논술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 학년제로 운영 자연계 학급당 10명 이내 수학과, 지역사회 교사 활용
특별 활동	수학문제제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수학적 문제를 추출하여 생활수학반 특별활동 자료를 제작한다. 제작된 학습자료에 대하여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특별활동 시간에 적용한다.
	수학 경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 분야에 재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 교육수요자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선발 대회 대상 : 1학년 전체, 2, 3학년 자연계 학생 지도교사 : 본교 수학교사

방과 후 학교 영역

운영 내용

수학심화반 운영
 수학 심화 level-up 반 운영

프로그램 내용		운영 내용
방과 후 학교	수학 심화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으로 진행(한양대 수학과 교수 10명과 R&E 방식으로 운영)-수학의 세계에 대한 방대한 분야를 직관을 통해 수학을 이해하고 적성을 찾도록함 대상 :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방과 후 학교	수학 심화 level-up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수요자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대상 : 수학 성적 향상을 요구하는 중, 상위권 학생

2. 과학과

체험활동. 특별활동 영역	
운영 내용 체험활동: 과학캠프(본교, 교육청, 대학), 병원체험, 공개강연회 계발활동: 과학발명반, 과학실험기초반, 과학실험심화반, 천체탐구반 행사활동: 외부 강사 초청강연회, 과학행사, 과학관련 대회, 서울시 교육청 과학축전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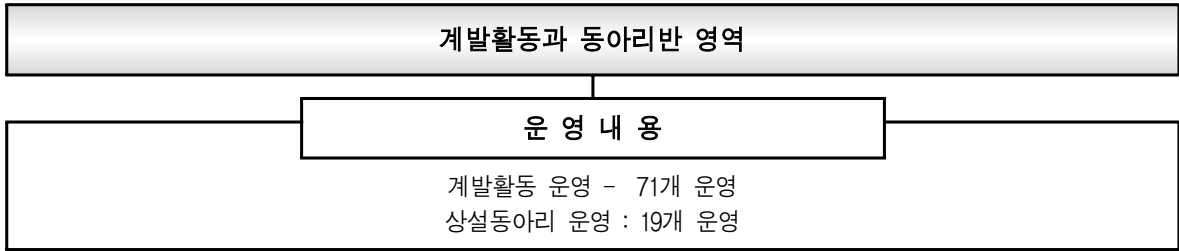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운영 내용
체험 활동	과학실험, 캠프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 - 한양대 자연과학대, 숙명여대 이과대 학과 연 6회 과학 실험과 방학중 캠프로 진행 · 1, 2학년 과학 계발활동부서 참가자와 학생 희망자 · 대학교수, 조교, 본교교사 공동 연구 실험 - 교육청, 대학교 주관 과학캠프 참가 - 학생 선발 추천
	원자력 병원	- 원자력 병원과 연계하여 의학관련 특강, 실험실습 참가 · 연 3회 실시 - 무학년제로 선발
	강연회 및 학술대회	- 과학관련 강연회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 외 - 한국천문연구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천문 관련 특강 및 체험 활동 - 학술대회 참가 - 학회, 대학 학술 강연회
특별 활동	과학발명반 과학실험기초반 과학실험심화반 생태체험반 천체탐구반	-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하여 탐구 - 실험기구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보고서작성 요령을 익히며 결과를 토론 - 과학캠프에서 실시하는 생태체험, 천체관측캠프에 참가 - 과학도서를 읽고 관련된 글을 토론하고 논술하는 능력을 배양
행사 활동	외부강사 초청강연회	-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험을 듣는 기회 제공 -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 활동의 체험이나 연구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천문 특강 및 지질시대 지구의 역사, 우주의 탄생 등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의 특강을 계획
	외부단체, 대학행사 참가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과학행사에 참여케 한다. - 미래의 과학 발전에 주역이 될 학생들로 하여금 선진화, 전문화된 과학 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 · 과학전담회 참가 · 이동과학교실 유치(한양대학교) · 서울대학교 농생대 과학체험 캠프 참가
	대회 개최 및 참가	- 과학대회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성을 계발 - 학생 주도의 과학행사를 계획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과 리더십을 배양 · 과학경시대회(교내, 교외) · 과학올림피아드 · 모형항공기 대회(교내, 교외) · 탐구 토론 대회(교내, 교외) · 발명품 경진대회(작품, 아이디어) · 과학 UCC 자료 제작 발표대회

3. 영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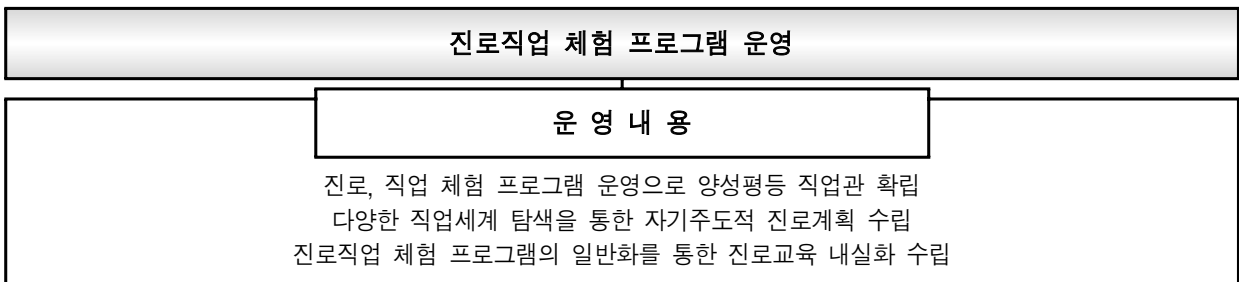
체험활동. 특별활동영역. 방과후활동
운영 내용
<p>체험활동: 여름,겨울방학 영어 캠프, 영미문화 체험반 이화여대 영어 동아리(UNI) & 상일여고 영어동아리(SEDC) 영어 연극 캠프 계발활동: SEDC, 영자신문 읽기 반, 영미 문화 탐구 반, 영어 UCC 제작반 방과후활동 : 영어 인증제 TEPS 반, 영어 level up 반 행사활동: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문학 특강, UNI & SEDC와 공동 연구</p>

프로그램 내용	운영 내용	
체험 활동	여름,겨울 방학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한양대 국제학부) - 원어민. 한양대 국제학부와 함께하는 여름, 겨울방학 영어 문화 체험 캠프 · 학교 원어민 및 국제 학부 대학생의 공동 수업 · 영어 회화 및 영어권 여러 나라의 문화 체험 · 1,2학년 희망자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하여 2반 운영 · 여러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영어회화 실력 향상
	UNI & SADC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이화여대)- UNI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영어 연극 동아리 & SEDC(Sangil English Drama Club) · Agatha Christie's "And Then There Were None"를 연습 · 1,2학년 영어 우수학생 20명 · 각자 맡은 배역을 집중적으로 연습 · 9월 학교 예술제에서 공연 예정
	영어 문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미 문화 체험 · 교과서에 있는 내용 및 자료의 구체적 체험 · 영상 및 영화를 통해 영미 문화 체험 및 이해 · 1,2학년 희망학생 · 1학기: 교과서 3과 Billy Elliot, 학생들의 희노애락을 이해할 수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 · 2학기: 가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Love Actually, Parents Trip
특별 활동	계발활동: SEDC, 영자신문 읽기반, 영어 문화 탐구반, 영어 UCC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DC: UNI와 공동 연구로 Agatha Christie's "And Then There Wer None" 을 연습하여 공연 함 - 영자신문 읽기반: 사회적 이슈와 교육적 내용을 읽고 토론함 - 영어 문화 탐구 반: 영어권 영화를 관람하면 문화를 이해, 탐구 - 영어 UCC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C제작을 통해 자발적이고 실용적인 영어 사용 · 학교 예술제 및 각종 UCC 대회 출품을 함 · 교과서 관련하여 대본 작성, 촬영 및 편집을 학생이 직접 함
	특별수업: 1.영어인증제 테스반 2. 영어 Level up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인증제 테스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우수 학생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 · 테스의 독해부분과 문법 부분을 학습하는 영어 심화 수업 · 한 학기 한 번 테스 시험에 응시하여 실력 변화를 확인 - 영어 Level up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일 등급 만들기 반 · 수능 외국어 영역 유형 별 학습 · 영자 신문 사설 및 칼럼 읽고 요약하기
행사 활동	외부강사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님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박시영교수님 D.H. Lawrence's "You Touched Me" · 2학기: 한중임교수님 Drama 특강
	학교 예술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DC (Sangil English Drama Club) 의 학교 예술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atha Christie's "And Then There Were None" 의 2막 2장 공연(30분) · 학기 중 및 여름방학에 이화여대 영어캠프에서 연습

라. 그 외의 개발활동 과 동아리반



영역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개발 활동	개발활동	일본 문화반 역사다큐반 미술반 영화제작반 대학탐방반 한의학체험반 떡만들기반 등 전체 71개 운영	영미문학체험반 디지털카메라반 연극사랑반 기독교동아리반(하시딴) 신문읽기반 고전영화감상반
	동아리활동	농촌봉사단(한별단) 상일연극토론반 Art Queen -미술동아리 등 전체 19개 운영	댄스동아리(JAB) 책수레 독서토론반



영역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체험 활동	견학 및 탐방 프로그램	방송 제작 현장의 이해 - 방송국 및 드라마 쉐타 방문 직업 군인에 대한 이해 - 육군사관학교 방문 및 육군 박물관 견학 미용 관련 직업에 관한 이해 - 화장 박물관 견학 및 미용 관련 직업 이해
	실습 및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체험 - 스스로넷 인터넷 방송국에서 방송, 정보 검색, 디지털 영상 체험 애니메이션 이해 - 애니메이션 체험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이해 돌하우TM - 영화 및 드라마 소품 제작 조리사(푸드코디네이터) - 조리사(푸드코디네이터) 직업의 이해 및 실습
	강연 프로그램	성공한 CEO - 각 사회 분야의 CEO 성공담 파티 플래너 - 점차 서구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파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및 직업으로서의 전망 이미지메이킹 - 개인 PR을 효과적으로 하며, 나의 이미지 변신을 위한 강연

VI. 학생 진로 지도 계획

1. 2010년 대학 및 학과 체험 프로그램 추진계획 < 고교 - 대학 연계 >

가. 추진개요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를 통한 대학 및 학과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학과 소개 및 특강, 졸업 후 진로 관련 등 세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나. 목적 및 필요성

- 대학 진학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이해의 필요성
-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위한 학과 이해
- 전공 학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진로 체험
- 고교 및 대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다. 대상 및 내용

대 상	내 용
본교 1,2학년 전체 학년	입학사정관제도의 전체적인 개요 설명
	입학사정관제의 유형에 관한 세부 설명: 리더십, 자기추천, 예술영재 전형 개발 및 연구
	인문, 자연, 예체능 세 분야의 특징을 설명
	위의 세 분야를 20개 학과로 나누어 학과 별로 특징 설명 및 졸업 후 전공 분야로 취업 및 진로 체험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진로지도 지원(입학사정관제 설명회, 20개 전공별 CD 및 전공자 방문, 합격수기집 및 관련자료 제공)

라. 추진 일정

- 대학 및 학과 체험 프로그램 : 2010년 7월 17일

○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진로지도 지원 : 2010년 5월 - 7월

2.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가. 방과 후학교 활동과 경시대회, 또는 정규과정 이외의 과정이수 인증제 (상일3품제 실시)를 통해 개인의 진로선택과 성과를 연계하고 관리해주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함.

나. 창의적 체험 활동 과정에서 범교과적 주제들은 다양한 학습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로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을 갖추고 학생들 스스로 축적 하도록 하고 교사가 이에 대해 검증 및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함

다. 학생 관리 방안의 실제

- 1학년에서 개인별로 학생들의 진로탐색검사를 통해 어떤 특정 분야에 소질을 보이는가 담임교사는 검사 기록지를 보며 학생을 적성별로 파악 한다.
- 최대한 개인별로 학생들이 1학년에서 선택하는 계발활동인 경우 3년간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 하도록 권유한다.
- 각 모든 영역에서 운영되는 학생별 자료는 모두 개인별 기록지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 첨부해두어 개인별 자료집을 만든다.
- 각 계발활동 별로 담당교사는 개인별 활동지를 연간 4회 정도 평가서를 써준다.
- 학교 내 경시대회인 경우 각 시기별로 수상자는 담임교사가 철저히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 재량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행사활동에서 개인별 학생 활동을 모두 기록지 만들고 교사 인증을 한다.
- 개인별로 지속적인 계발활동 후 유관한 교과에서 향상된 성적을 보이는 경우 교사 인증 확인을 해주고 최종 학교장의 인증을 같이 받게 한다.

<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학생용 활동 기록지 >

창의적 체험 활동 포트 폴리오					
활동 주제					
학년		이름		활동 기간	
활동 소주제		지도교사		활동 장소	
작성 유형				지도 교사 확 인	
1. 느낌이나 생각한 점 쓰기 2. 활동 관련 논제를 제시하고 논술문 쓰기 3. 활동 내용 중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적고 선택한 이유 쓰기 4. 활동 주제와 관련된 인물에게 편지 쓰기 및 인터뷰 하기 5. 활동 내용으로 신문 기사 쓰기 6. 활동 내용 관련 생각 그물(마인드 맵) 그리기 7. 활동 관련 책 서평 쓰기 및 책 소개하기 8. 활동 일기 쓰기 9. 관련 드라마나 영화 비평하기 10. 활동 관련 퀴즈 만들기 11. 활동 주제와 관련된 사건, 생활 등을 그림(만화)으로 그리기, 책 표지 디자인 하기 12. 활동 사진 붙이고 사진에 설명 달기					
후속 활동 계획					
지도 교사 조인					

Ⅶ. 상일 3품 인증제(교과, 인성, 예술 분야)

1. 목적

-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를 각 분야의 품(品)으로 나누어 수상하고, 3품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학교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그 뛰어난 능력을 보장하고자 한다.

2. 시행 방법

- ① 아래의 각 항목을 만족하면 1품이 되며,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학생에게 상일 3품 인증

서를 수여한다.

- ② 인증을 원하는 학생은 매해 겨울방학 일주일전(3학년은 2학기 개학 1주일 뒤)까지 근거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상일 3품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후 인증서를 수여한다.
- ③ 모든 기준은 1년을 기준 단위로 하나 특별히 지정 기준이 명시된 분야는 기준에 따른다.

3. 효과

-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여 소질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능력을 보증함

교 내 상			
분야	항목	인증기준	인증주체
교과 품	① *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우수자	언수의 합 백분위 98% 이상	진학부
	② * 내신 성적 우수자	인문·사회계열-상위 5위 이내 이공계열-상위 5위 이내 (연 단 위)	교무부,진학부
	③ 과학분야 - 과학경시, 과학 발명, 과학 독후감, 과학 표어, 포스터·화학시	모든 교내 경시대회는 각 학년별 최우수상만 인정함	과학부
	④ 인문·사회분야-독후감, 논술, 독서 토론, 독서 골든벨, 백일장, 양성평등, 통일초청감상문	모든 교내 경시대회는 각 학년별 최우수상만 인정함	국어과
	⑤ 외국어 분야-영어 경시, 영어 단어 경시, 한문	모든 교내 경시대회는 각 학년별 최우수상만 인정함	영어과,한문과
	⑥ 수학, 컴퓨터분야-수학경시, 컴퓨터 경시	모든 교내 경시대회는 각 학년별 최우수상만 인정함	수학과, 정컴과
인성 품	① *예절상(3년간 1품까지만 인정)	학년별로 연말에 1명씩 선발	진로상담부
	② 체육분야-태권도(심성수련)	3단 이상	국기원
예술 품	① 예술분야-포스터대회, 사생대회	모든 교내 경시대회는 각 학년별 최우수상만 인정함	미술과

<*표 항목은 세부사항이 밑에 있음>

교외상				
분야	항목	인증기준	인증주체	
교과 품	①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법경시대회 한자 급수자격증	3+ 등급 이상 3급이상 법경시대회-수상자 3급 이상	해당대회 주최 기관	
	② 영어	(1) Toefl(IBT)	95점 이상	한미 교육 위 원 단
		(2) Toeic	880점 이상	한국 Toeic 위 원회
		(3) Teps	800점 이상	서울대학교
	③일본어	JLPT	2급(N2)이상	일본 국제교류 기금
		JPT	540점 이상	YBM시사
	④중국어 - 신HSK(한어수평고시)	신HSK 4급 이상	중국국가한반	
⑤수학,과학,정보등 각종올림피아드	입상자 전원 인정함	해당대회 주최 기관		
인성 품	① 각종 대회 참여 수상(합창반, 미술반, JAB, 각종동아리, 체육분야)	생기부 대외 수상기준에 의거함	해당 대회 주최 기관	

학교생활참여도			
분야	항목	인증기준	인증주체
인성 품	① 리더십(동아리 회장, 학 생회, 학급임원, 선도부)	학생회 회장·부회장, 동아리 회장, 학급 회 장, 선도부 단장만 인정함	생활지도부
	② 봉사활동 참여	대외 봉사 100시간 이상인 자(3년간) -1년간 100시간을 채웠을 경우 1품으로 인 정하고 2품을 넘을 수 없음(대외봉사의 장소 는 3곳 이내로 제한함)	특별활동부

프로그램 참여			
분야	항목	인증기준	인증주체
교과 품	① Teps반	Teps반: 우수상(1품)-Teps 시험 3회 이상 응시(프로그램 시작 초, 1학기 말 2학기 말)하여 실력을 향상한 학생	영어과
	② 수학심화반, 수학 LEVEL UP반, S.E.D.C반	수학심화반: 우수상(1품)-고교-대학프로그램(한양대)에 1년간 성실히 참여하고 그룹별 수학체험 발표에 참가하여 적극성을 보인 학생 수학 LEVEL UP반: 우수상(1품)-참여학생 중 1학기 또는 2학기에 수학 성적 등급이 1등급 이상 향상된 자 (1등급은 1등급 유지자) S.E.D.C반: 우수상(1품)-고교-대학프로그램(이화여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SEDC Soliloquy Contest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학생 (수상기준-영어연극반중 contest에 참가하여 1차 예심을 통과한 10명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에게 1품을 수여)	수학과 영어과
	③ 자기주도 학습자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참가 학생이나 자기주도학습장 등을 만들어 자기관리를 한 학생으로 전교과 또는 특정 과목의 일관된 성적 향상을 보인 학생 - 1년 단위로 담임교사 선정 학생을 심사한 후 인증	자기주도학습 담당자 와 정책개발 지원팀

* 세부사항

- ①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우수자 : 연수의 합 백분위 98% 이상
(매번 시험 후 진학부에서 성적 생성 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공,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통보)
- ② 내신 성적 우수자 : 인문·사회계열-상위 5위 이내 , 이공계열-상위 5위 이내
(연 단위로 실시하며 기준 성적은 전 교과 성적 우수자로 함)
- ③ 예절상(3년간 1품까지만 인정) : 연말에 학년별로 1명 씩 상일 3품 인증위원회에서 선발

Ⅷ. 운영실적과 애로점

1. 운영실적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은 2009. 12월부터 시작하여 3개 대학과 연계하고 1개 병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대체로 학생 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다.

2. 애로점

대부분의 대학과 협약식을 할 때 단과대학별로 직접 연결이 어려워 입학처를 통해 해당 고교의 진학률 등 상호 득실관계에서 협약을 맺어야 했고, 특히 입학처는 발빠르게 개방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해당 학과 교수님들의 반응이 탐탁치 않았던 부분이 많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또 많은 예산을 미리 확보한 후 진행해야 하는 애로점도 갖고 있다.

Ⅸ. 기대효과

가. 2011년도에는 고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학교 수업을 운영하여 summer school, winter school을 통해 각 영역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대학선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선 경험이 있는 경우 훨씬 수월하게 대학 선수 학습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영재학급을 운영하여 영어와 수학, 과학분야에 탁월한 학생들의 창의적 신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문교과 실험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가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고교-대학 프로그램을 자기 주도학습 방향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 올해는 동아리반 중심으로 소수 최우수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고 주요 특정과목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내년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교과에 기타교

과를 중심으로 제2외국어 분야나 기술, 가정교과, 예체능 교과도 대학과 연계하여 관광일본어, 관광중국어, 미술의 세계, 조리과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 례 3

내가 경험한 입학사정관제

■ 오 대 금 학생
(부산대학교)

사 례 3

내가 경험한 입학사정관제

■ 오 대 금 학생
(부산대학교)

I. 들어가면서

고등학생이 아닌 졸업생, 대학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무척 기쁘다. 입학사정관제도로 입학한 저로서는 이 제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준비했던 과정, 제도의 강점과 문제점,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발표하겠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변화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 본인소개

1991년 6월생. 현재 만 19세

2004년 ~ 2007년 부산 서부 교육청 과학 영재원 교육과정 수료.

2007년 ~ 2010년 부산남고등학교 Art Physics 동아리반 활동

2010년 ~ 현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재학 중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수시 전형 중, '특기자 전형' 1차 합격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수시 전형 중, '입학사정관전형' 1차 합격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수시 전형 중, '효원 인재 전형' 최종 합격

교내 과제연구 '도미노의 개수와 간격에 따른 충격량 전달속력에 관한 연구'

부산과학전람회 '얇은 판 모양 물질의 열전도도 측정에 관한 연구'

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고등학교 시절 17편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작성.

II. 입학사정관 준비과정

고등학생 당시 새로 생겨난 입학사정관 전형 제도에 맞춰 개인의 우수성을 증빙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포트폴리오의 내용으로는 연구보고서와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내용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연구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17편 정도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썼고, 그 중 '과제연구' 과목으로 수행했던 연구와, '과학전람회'를 위해 했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연구의 특징은 창의적인 생각과 오랜 시간의 탐구를 요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다면 그런 시간을 내어가며, 여유롭게 고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부산남고)는 입학당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방형 자율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와 많은 실험도구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탐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 외에도 친구들과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고, 경시대회나 교육청에서 주관한 특강들에 참관하며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나갔다. 그렇게 만든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책자로 만들어 입학사정관제의 증빙자료로서 제출하였다.

III.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단상

1. 잠재력에 대한 평가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성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하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이 낮아지고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내신의 차이를 만회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잠재력을 내신에서 발휘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잠재력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하고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러한 잠재력이야말로 진정 그 사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친다.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입각하여 판단하기보다, 미래를 예측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가 바로 잠재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러한 개인의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2.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를 발굴 할 수 있는 기회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이 개인의 특별한 활동이나 뛰어난 능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발명에 관심이 많고 특기가 많은 학생이라면, 국어와 영어문제를 조금 못 풀더라도, 충분히 발명에서 두각을 보이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단순한 내신 및 수능 평가에 의하면, 이러한 것은 고려되지 않으며, 그저 문제를 잘 푼 학생에게 더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 입학사정관제는 개인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는 잘 풀어내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특성을 살려 실제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발굴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즉, 실제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다.

3. 사교육 열풍 감소

입학사정관제는 내신이나 수능 이외에도 개인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사교육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영역을 만들었다. 물론, 구술면접에 대비한 사교육이나,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로 기존의 학원에 대한 사교육비는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4. 기존의 입시제도와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신 및 수능 공부 이외에 별도로 타 학생들과는 달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제도에 의하면, 전형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당시, 많은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했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면,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미 누적된 피로 탓에 밤샘작업은 몸에 많은 무리를 주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도 고생을 했다.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체제는 정확히 내신과 수능에 맞춰져 있다. 정해져 있는 시간동안 일정량의 공부를해내야 하고, 그 시간과 분량을 완수하고 나면 하루가 꼬박 지나가고 만다.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 판국에,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는 힘들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는 수업에 불참하거나, 잠을 더 줄이는 무리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업에 빠지거나 하는 일들은 그리 올바른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체제는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무리수를 요구하는 모순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5. 학생들의 오판과 악용

입학사정관계가 생겨났을 당시 논란이 많았다. 내신이 좋지 않아도 명문대학에 진학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다. 내신이 비슷한 두 학생이 있더라도, 사정관들의 판단에 따라 내신이 조금 뒤쳐진 학생은 합격하고, 앞서 있던 학생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내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고서 작성이나 봉사활동시간, 수상경력을 더 중요시 여겨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잇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톡 없이 부족한 내신에도 무모한 꿈을 꾸어 무리하게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내신이 좋지 못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을 ‘오판’한 것이다.

심한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활동을 첨부 하는 경우도 있다. 분량이 많다는 것과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쓸 시간이 필요하니 집에 일찍 귀가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타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오판과 악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계의 문제점이라고 본다. 입학사정관제를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관심을 가져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의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6. 질 평가의 객관성 문제

많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러 활동과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정도나 학생의 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등학생 당시 과제연구라는 과목에서 ‘도미노’를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매 수업은 물론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탐구를 수행해 최우수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상장에는 5명의 학생이 적혀 있다. 그러나 그 5명이 모두 적절히 참여하고 상을 받을 만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거저먹기로 상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불성실한 조원들에 의해 상을 받지 못했으나, 혼자서 많은 일을 하고 나름의 좋은 결과를 도출한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정관들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다. 학교의 교사마저도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인데, 사정관들이 그 수많은 경우를 일일이 다 알아내고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또 입학사정관은 논문과 같은 활동 외에 학생의 성적 변화 정도도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내신 성적의 처음과 중간, 끝을 비교함으로써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실력의 변화와 노력의 대가에 가치를 부여하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점이 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로 처음에는 시험을 못치고 뒤에는 잘 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무모한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처음에는 시험을 대충 쳤다가, 후에는 열심히 쳤을 수도 있다. 학생의 실력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실력향상'이 있다. 또한 반대로, 그 학생의 실력은 향상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의 실력이 함께 향상되어 겉보기 실력에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결과와 성적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IV.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한 과제

1. 공교육(고등학교)의 지원체제

입학사정관제에 맞는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활동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실험을 한다면, 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을 위해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진정 미래를 위한 투자일 것이다.

또, 단순히 학생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자원뿐 아니라, 창의적 활동과 학생의 올바른 변화를 지도해 줄 우수한 지도교사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평가방법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학교의 많은 지원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이나 환경보다도 제대로 된 교사들의 교육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등학교의 내신·수능 중심적 교육과정 개편

앞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체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했듯이, 학생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강점을 들어내기에는 현 중등교육의 제도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에 맞추어 내신과 수능 중심적인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수업시간과 보충수업, 수동적인 수업방법에 브레이크를 걸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업으로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

3. 교사들의 관성적 태도와 시선의 변화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면서 몇몇 지도 선생님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곤 했다. 당시 고등학교 제도로는 많은 양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실험보고서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보충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위해 할애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지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포용력 있게 이해하기보다 못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셨다. 새로운 입학전형에 맞춰 남들과는 다른 활동을 하고 도전을 하는데, 그러한 선생님들의 따가운 시선은 준비하는 학생들의 의욕을 떨어뜨렸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관성적 태도와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대학에서 갖춰야 할 환경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간 친구들은 불만이 있다. 이 전형에 대해 대학에서 다른 학생들과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애써 잠재력이나 창의력이나 하는 학생들의 강점을 좋게 평가받아 입학했지만,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에 합당하지 않는 그저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은, 강점을 인정받아 입학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입학사정관제를 거친 학생들을 우대해주어야 한다거나 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단지 다른 방법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그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봐도 힘들게 뽑은 학생들이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해주어야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입학에만 투자를 하고, 대학 내부적 제도의 변화는 모색하지 않고 있다.

본인은 고등학생시절 모교에서 많은 탐구를 직접 계획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일반 물리학 실험'이라는 수업을 통해 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

해진 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기만 하면 실험의 목적이나 이유를 몰라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을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험의 참된 목적은 과학적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인데, 대학에서의 실험은 단순히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데에 연연해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실험이 대학교에서의 실험보다 수준 높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또 다른 하나는 장학제도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계열별, 단과대학별, 학과별 상위권자들에게는 입학당시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곤 한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분명 똑같이 입학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 받고 입학할 똑같이 했지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입학성적 우수자들은 커트라인 성적을 유지하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학에서 그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전액 장학금 규정에는 약간 못 미치는 성적 탓에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이러한 모순적 제도 개편도 꼭 필요하다.

5.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

평가방법의 객관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고등학교의 변화, 학생들의 변화와 대학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이들의 변화만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작은 대다수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의 큰 변수의 변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잠재력과 변화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변화가 필요하다. 내신 성적 외에 다방면의 학생의 능력을 일찍부터 측정, 기록 하여 변화의 양상을 판단하고,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교육과 창의 인재에 대한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치 학생보건기록부처럼 어릴 적부터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여 변화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평가가 가능해지고,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학생들도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올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V. 마치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으로서, 현 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불만이 많다. 그 내용은 위에서 충분히 언급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는 본인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불만과 오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주시길 바란다. 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서부터 공교육, 대학 그리고 국가적 차원까지의 변화와 노력이 촉구된다. 빠른 시일 내에, 단기에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학사정관제는 물론이고 공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조금 더 나은 교육제도를 찾길 기원한다.

발 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개선방안

■ 김 승 보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개선방안

■ 김 승 보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핵심으로서 '창의적 인재'의 요구

○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우수 인력의 뒷받침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한계에 직면

-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고등교육 이수율 등 양질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또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급격히 축소
 - ※ 197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PPP⁶⁾ 기준)는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미국의 60% 수준
 - ※ 1960년에 25세 이상 성인인구의 2.6%에 불과하던 대학학력 인구는 2000년에는 25.8%로 증가하고 있고 중등학력 인구는 10.9%에서 49.5%로 높아짐. 2007년도 현재, 성인인구의 77.9%가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
- 1995년 이후 15년째 국민소득 1만불의 정체가 지속되는 등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미래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크게 감소
 -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요인에 있어서 총요소생산성⁷⁾ 부분의 기여도 제고

6)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지수)

가 특히 필요함. 우리나라의 전산업 총산출증가율은 7.74%로서 미국(2.76%), 일본(2.32%), EU10개국(2.37%)에 비해 크게 높으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0.20%에 불과하여 미국(0.40%)이나 EU 국가(0.34%)에 비해 매우 낮음.

<표 1> 전산업의 산출증가율과 기여요인 분석('81-'05)

국가	총산출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에너지 투입	원재료 투입	서비스 투입	TFP
한국	7.74	0.64	1.91	0.48	3.08	1.44	0.20
미국	2.76	0.56	0.72	-0.04	0.45	0.67	0.40
일본	2.32	0.06	0.93	0.04	0.53	0.58	0.17
EU10국	2.37	0.21	0.54	0.03	0.53	0.73	0.34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09),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재구성

- 노동, 자본 등 양적 요소의 투입을 증가하는 노력보다는 노동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혁신, R&D 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지식과 창조성에 바탕을 둔 질적 요소의 향상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전환 요구
- ※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이 '지식자본축적'이나 '기술진보'에 의하기보다는 인적·물적 생산요소의 단순 축적에 의한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 기인하여 성장의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경고(폴 크루그만, 1994)⁸⁾

○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세계 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다시 지식기반 경제에서 창의성 기반 경제로 이동 중이며, 성장을 위한 가치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거쳐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전환되고 있음.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자료집 p.39 참조)

7)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전체 생산요소를 투입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임. 노동생산성보다 총요소생산성을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수의 노동자라도 기계 등 보다 많은 자본을 갖추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되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한 나라의 생산효율이 반드시 높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임.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진보와 같은 혁신역량의 축적이 중요함.

8) "Economic growth that is based on expansion of inputs, rather than on growth in output per unit of input, is inevitable subject to diminishing returns." Paul Krugman(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73

[그림 1] 창조 경제의 부상

	산업경제	지식경제	창조경제
경제 위기	오일쇼크 (1970~80년대)	IMF 외환위기 (199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성장 동력	토지, 노동, 자본	지식, 정보	상상력, 창의성
주력 산업	중화학 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IT 산업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	창조 산업 (서비스, 예술, 콘텐츠)
성공 신화	한강의 기적	IT 강국 코리아	Creative 코리아

자료: 노준석(2009). 영국 창조산업의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한국컨텐츠진흥원 포커스, 통권 제1호. 한국컨텐츠 진흥원. p.4.

- 유럽연합은 ‘유럽 창의성과 혁신의 해’를 선포⁹⁾(2009)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영국의 Creative Britain(1998), 미국의 Creative America(2000)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文化創意產業(2005) 등 후발국가에서도 창조 경제의 핵심인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음.
 - ※ 창조 산업은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정의(영국의 문화미디어 스포츠부(DCMS), 2001)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근간으로서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재능발견 및 체험활동 등 창의성 문화 및 창의성 교육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은 창의인재 채용 및 경영풍토 조성에 주력
 - ※ 영국 정부는 ‘재능 발견(Find Your Talent)’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2,500만 파운드(약 509억원)를 투입, 아동과 청소년들이 전시회 견학과 연극 관람 등 10개 분야에서의 문화활동을 1주일에 5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창조산업에서 매년 5,000명의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비함
 - ※ 기업에서도 사원들의 자발적 감성 지능을 키우는 기업문화나 일하는 공간의 새로운 창의적 접근으로서 레이버테인먼트(labertainment)¹⁰⁾현상이 트렌드로 부상.

9) www.creat2009.europa.eu

10) 놀이를 하다 보니 일이 되고, 일에 몰입 하려다 보니 즐거워야 한다는 인간 본성의 호모 루덴스 기질을 자극하

<기업 사례>

- ◇ 구글의 '편 경영'은 재미와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경영기법임. 구글은 전직원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업무 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사무실에 예산(Funding)을 지급.
- ◇ 포스코는 2009년 12월 28일, 광양과 포항의 기술연구원에 창의놀이방인 포레카(POREKA)를 동시 개소하여, 사원들이 창작과 몰입, 재미, 발상의 전환을 체화하도록 하고 있음.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사색과 명상, 재미와 몰입을 통해 창의연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지도 체계의 재점검 필요

○ 창의 인재에 대한 요구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되는 절박한 문제로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로지도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함.

- 창의인재 육성의 문제는 단순히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현재의 인적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문제임.
 - ※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투자 행태는 지나치게 유아·청소년 시기에 집중되고 있고 인력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투자 패러다임으로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불어 닥친 대량 실업사태, 청년 취업난 심화, 고용불안 및 평생직장개념의 파괴 등 구조적 위기 이후 많은 한계를 드러냄.
- 특히,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로 인해 세계경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
 - ※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신규 졸업자 중심에서 경력직 중심으로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정기 공채 중심에서 수시 채용 중심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도 지속적으로 감소
- 탈산업화의 새로운 경제체제로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진로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진로지도 체계의 재정비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고 반응하게 한 문화 현상.

※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진로경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청소년기에 대체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진로설계가 장기적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진로 내용은 점진적 부분적 수정을 가하는 방식이었음.

- 탈산업사회의 진로경로는 때로 혼돈스런 환경에 놓일 정도로 역동적이며, 진로선택은 반복적이거나 일생에 걸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짐. 또한 여러 회사, 여러 업종과 직업, 심지어 여러 나라에 걸쳐서 고용되게 되어 장기적 진로설계는 용이하지 않으며, 더 성장하려는 개인 욕구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개인의 진로경로에 나타나게 됨. (한상근, 2009)

<표 2>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의 진로 경로 비교

영역	산업사회의 진로경로	탈산업사회의 진로경로
환경	정태적 환경	동태적이고 때때로 혼란스러운 환경
커리어 선택	종종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초기에 선택	생애 전체동안 반복적이며, 때때로 주기적 선택
취업	1~2개 기업체	여러 개의 산업, 직업, 심지어 국경선을 넘어 여러 개의 기업에 취업
진로 계획	장기	단기
개인의 변화 영역	조직이 주도하며 점진적 변화	개인이 주도하며 변화의 폭이 큼
심리적 계약관계	고용주는 종업원의 조직적 헌신에 대한 대가로 직업안정성을 제공	고용주는 양질의 노동에 대한 보답으로 학습기회를 제공

자료: 한상근(2009). 창의적 커리어 패스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46. 변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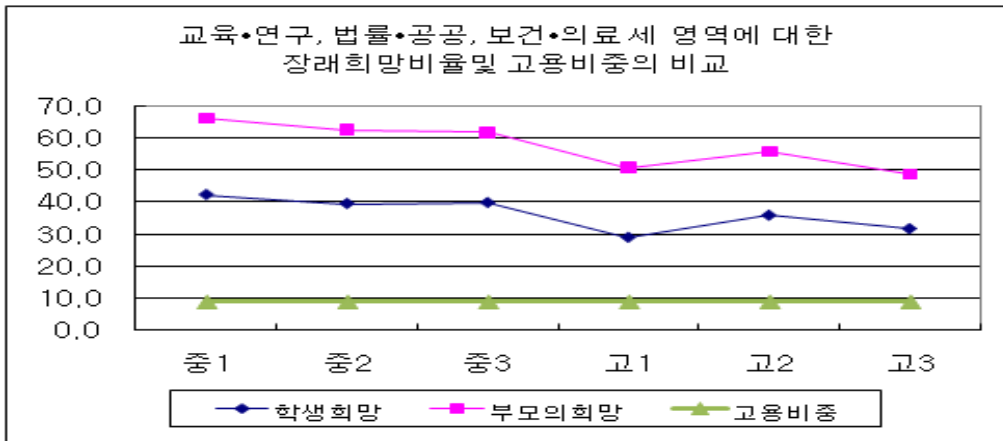
Ronald J. Burke, Cary L. Cooper(2008). Building more effective organizations: HR management and Performance in Practice. 1 CambridgeUniversityPress.

○ 진로지도 체계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학교 진로교육의 준비가 중요하며, 새로운 직업 환경에 따른 능동적인 진로개척능력은 창의인재 육성의 토대로 작용.

- 미래 보장에 대한 고전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명문대학 및 인기학과 그리고 현재의 유망한 직종 중심의 진로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창의 인재 시대에는 전혀 다른 직업적 환경이 전개되는 등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우리 사회와 학교의 진로지도는 인생의 진로가 다양하며 능동적 진로개척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채 ‘진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음.
- ※ 직업사전상의 중분류(23개 영역)에 의한 청소년 및 부모의 장래 희망직종을 비교한 결과, 교육 및

연구분야, 법률 및 공공분야, 보건 및 의료분야 등 세 분야의 직종에 대한 희망비율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학생은 42.3%, 부모는 66.1%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세 분야의 고용비율은 205만명 정도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315만명의 8.9%에 불과하여 여전히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고전적인 일부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교육·연구, 법률·공공, 보건·의료 세 영역에 대한 장래희망 비율 및 고용비율의 비교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2009년) 및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08)으로부터 계산

-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학교의 진로교육은 특히 취약하여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한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
- ※ 국가적 차원에서 진로지도 체계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의 균형개발 및 구성원 전체의 직업생산성 제고에 핵심적이며 사교육·재수생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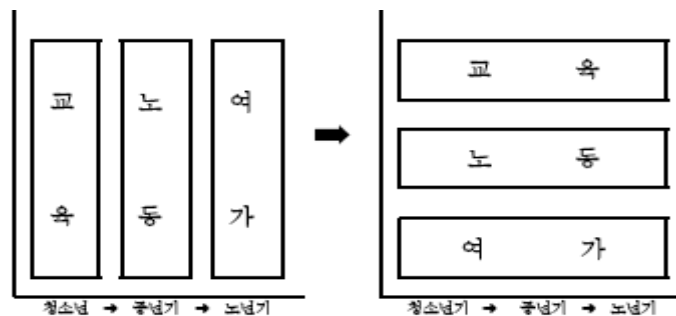
II. 창의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본 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

□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진로경로 설정으로 인해 창의력 신장 가능성 차단

- 현재의 학교 진로지도는 산업시대 청소년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진로경로를 전제한 방식으로서, 탈산업 사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함.

- 현재의 학교 진로계획은 청소년 시기 이후 안정적이고 순차적인 삶의 경로를 설계하는데 집중하는 산업화 시대의 방식으로서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진로경로를 전제하는 것임. 그러나 복잡하고 유동성이 큰 탈산업화 시대의 진로계획은 한 가지 방식의 주어진 경로를 추구하는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불확실성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고유하고 독특한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함(장원섭, 2007)
- 즉, 산업사회에서는 직업세계에 입직한 이후 같은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아 가는 것이 이상적인 유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탈산업사회에는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며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평생진로교육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음.
 - ※ 산업사회의 진로경로가 성장→학습→취업→퇴직과 같은 순차적인 생애주기 중심이었다면, 탈산업 사회의 진로경로는 복선적 형태의 생애 주기로 변모하며 연령통합적임.(한상근, 2009; 김문조,2006).

[그림 3] 탈산업 사회의 복선형 생애주기



자료: 김문조(2006). 『커리어의 복잡화』.

- 일단 좋은 대학에 진학한 후 진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현재의 진로 행태나 전문계고 졸업자들조차 노동시장 진출보다는 대학진학으로 진로경로가 집중 되는 등 단선적·획일적 진로경로 설정에 기인한 대표적인 사례임.
 - ※ 전문계고 졸업 이후 대학 진학률 증가: '95년 진학 51.4% : 취업 33.6% → '08년 진학 83.8% : 취업 5.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자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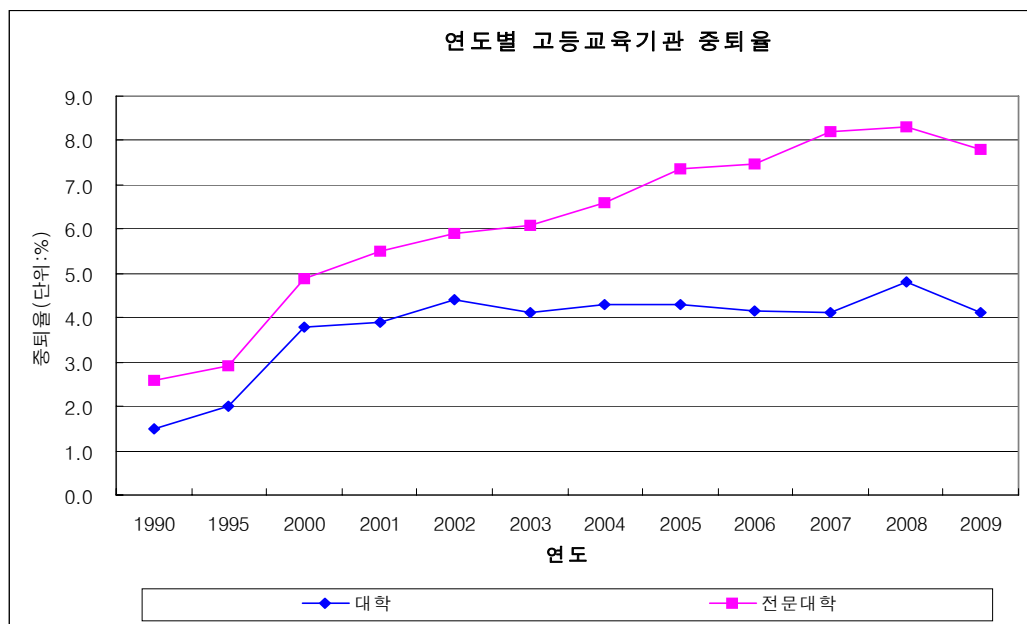
○ ‘좋은 대학 = 좋은 직장’의 성공신화를 기반으로 한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진로경로 설정은 초중등교육을 황폐화함으로써 창의 인재 육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음.

- 중등교육 단계의 단선적·일방향적 진로지도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성공신화를 강화시켜 불필요한 대학진학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이 초중등 교육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진학에 모든 학생들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총력체제’를 형성함.

※ 학교 수업을 하기도 전에 미리 진도를 나가는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 등으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은 퇴화됨.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자료집 50쪽 참조)

- 입시준비의 결과로서 진학한 대학이 ‘좋은 대학’의 기대치에 못미치거나 진로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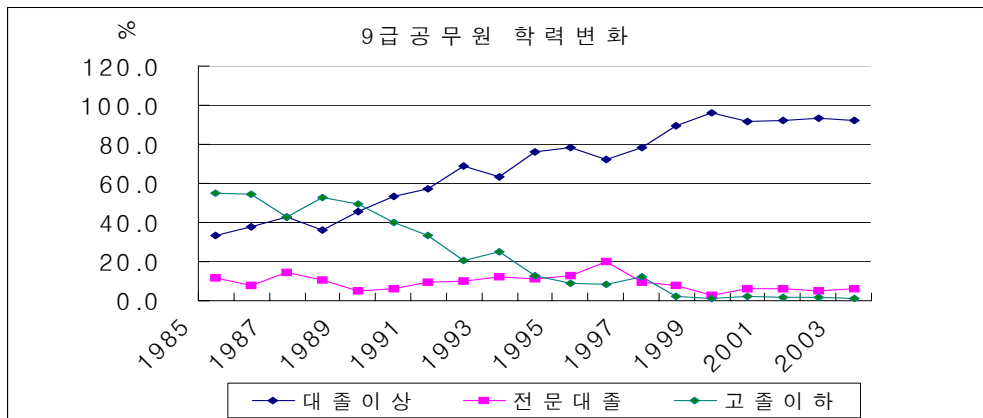
[그림 4] 탈산업 사회의 복선형 생애주기



주 : 중퇴율 = 당해년도 제적학생수/전년도 제적학생수×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고학력자의 양산으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며, 제한된 일자리구조는 환경미화원 공채에 대거 고학력자가 지원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
- ※ 지난 20년 동안에 9급 공무원의 업무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우리 사회에 배출되는 고학력자 과잉 공급은 중간급 기술자의 절대적 부족을 야기하고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짐.

[그림 5] 9급 공무원 학력변화



자료: 행정자치통계연보(9급 공무원 학력 변화 1985~2003)

- ※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대졸 이상 고학력의 수는 1995년 244,000명에서 2005년 833,000명으로 3.4배나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상용직 근로자는 1,929,000명에서 3,105,000명으로 1.6배 증가하는데 그침. (김용성:2007)

□ 학생의 창의성보다는 선발의 편의성·용이성에 치중하는 공급자 중심의 입시제도

- 단선적·획일적 진로경로 추구는 수요자인 학생보다 공급자인 상급학교의 지위를 강화시켜, 선발에 있어서 학생의 창의성이나 교육과정의 충실도보다는 공급자의 편리성 및 용이성에 바탕을 둔 입시·평가체제 구축

- 산업화 시대의 폭발적 교육수요 및 단선적·획일적 진로경로 설정이 맞물려 수요자인 학생의 지위보다는 대학 등 상급학교의 지위가 강화되었으며, 학생선발 시장은 일종의 공급자 우위시장(seller's market) 상황이 지속
- ※ 과도하게 비싼 대입 전형료는 공급자 우위시장의 증거라 할 수 있음

<표 3> 대학입학전형료 현황

(단위: 천원)

순위	학교명	입학전형료(수입)	입학전형료(지출)	차액(수입-지출)
1	중앙대학교	8,090,158	6,732,586	1,357,572
2	한양대학교	7,434,585	4,879,190	2,555,395
3	성균관대학교	7,348,820	5,635,575	1,713,245
4	고려대학교	7,038,386	6,537,265	501,121

주: 지출내역: 학부신입(수시, 정시), 학부편입, 대학원, 기타특수과정 광고 홍보비와 수당 등으로 쓰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알리미 '2010 입학전형료현황'

- 대학 등 상급학교가 아랫단계의 학교 교육과정이나 창의성 등 학생의 가능성과 잠재력 평가를 통해 해당 학교(대학)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시간적 노력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함.
 - ※ 미국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등 학생선발과정을 위한 예산 책정
-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및 진학수요의 폭발적 팽창과정을 통해 학생선발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 상급학교(대학)로서는 선발의 주체로서 응당 지불하여야 할 노력이나 투자를 수요자인 학생과 학교에 전가한 측면이 있음.
 - ※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부담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 부담이 훨씬 큼.
- 대학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라는 단선적·획일적 진로경로 인식에 따라, 대학진학을 위한 선발 방식이 초중등 교육과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의 틀도 선발 방식에 맞추어지게 됨.
- 대학 및 학생 양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삶의 맥락에 적합한 지식이나 안목 혹은 잠재력을 가졌는지 하는 것을 평가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어렵고도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방식이므로, 선발기관으로서의 편리하고 용이한 방식으로 학문체계에서 추출된 고정된 지식의 습득량을 선다형(객관식) 방식의 평가를 선호.
- 선다형 평가의 결과(시험성적)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나, 이는 개인의 적성이나 장래 희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 진로경로 선택의 이유를 물어 본 항목에서 전문계고 학생의 경우 '성적이 못 미쳐'(27.7%)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계고의 경우는 '별 다른 이유 없이'(40.3%)로 나타남.

<표 4> 고교 진학 시 계열 선택 이유

결정이유	적성	성적	부모기대	대학진학	친구	장래희망	이유없음	교사추천
전문계	15.8	27.7	3.8	14.6	1	15	17.5	2.1
일반계	4.3	11.1	9.9	15.4	6.1	6.5	40.3	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9).

○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험점수 중심의 서열체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초·중등의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창의성 신장의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

- 창의성이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는 학생이 실제 삶의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응용하고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상황체험 속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습득한 학습량’을 평가하는 ‘시험성적’ 중심의 선발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의 교육구조에서 이러한 활동은 용이하지 않음.

※ 핀란드가 매우 적은 학습시간 및 양으로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이유 중 하나는 단기집중이수 및 블록타임제를 통하여 하루당 이수과목수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4-5과목), 단순히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 아는 것을 벗어나 손으로 배우고(hands-on learning) 온몸으로 학습하여 기억과 파지를 오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홍후조, 2008; 루트번스타인 외, 1999)

- ‘시험성적’을 위한 지식 습득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험성적 향상과 관련이 없는 교육 활동은 부분화·형식화·주변화 되어 교육활동으로부터 소외되며,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을 줄이면서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음.

※ 학습량 습득 정도에 의한 선발경쟁 체제는 학습에 대한 학생의 태도나 성취동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에 대한 깊은 탐색의 기회도 박탈하며, 학생의 창의성이나 잠재력 발굴을 위한 교육활동, 주류 시험과목이 아닌 예능이나 체육 등의 영역, 기초적인 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활동 등 시험성적에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축소 혹은 외면

<표 5> PISA 2006의 국가별 주당 평균 학습시간, 점수 및 시간당 점수(과학+수학+읽기)

국가	정규 수업시간	학교밖 공부시간	혼자하는 공부시간	공부시간 합계	점수 합계	시간당 점수
네덜란드	8	1.8	4	13.8	1562.3	113.2
한국	12.8	7.1	4.9	24.8	1625.6	65.5
OECD평균	10.6	2.4	4.9	17.9	1489.5	83.2

자료: 홍후조 외(2008). 학교시간운영의 효율화와 이수과목수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6권 4호. p.80. 한국교육과정학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9).

<표 6> 각국의 수면시간 및 운동시간 비교(15세-24세)

(단위: 시간, 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수면시간	7:30	8:47	8:36	8:06	8:26	8:31
운동시간	0:13	0:37	0:13	0:24	0:26	0:22

원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 BLS, ATUS(2004), EUROSTAT, HETUS(2005) 總務省統計局 社會生活基本調査(2001)

자료: 김기현(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 연구. 보건복지부. p.56

○ 학교 수업과 상관없이 미리 진도를 나가는 학생들의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크게 형성되는 원인도 결국 선발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점수위주의 평가방식 때문이며 이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퇴화시키고 있음.

- 점수위주의 선발 관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사교육 중심으로 편제되고 있으며,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체제임.

※ 학원이나 과외교사로부터 선행학습을 하면서 성적관리를 해온 학생들은 정답 빨리 찾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성이 떨어짐. (조한혜정, 2009)

- 우리나라, 일본, 핀란드, 미국 4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및 평균 사교육 시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분위가 높은 학생들 일수록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긴 시간 사교육을 받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덜 받고 있음.

<표 7> 학업성취도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수학)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핀란드	0.38	0.29	0.26	0.2	0.13
일본	0.38	0.34	0.35	0.38	0.42
한국	0.49	0.65	0.76	0.84	0.89
미국	0.67	0.65	0.58	0.49	0.37

자료:박소영 외(2009). PISA 2006 정책적 시사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25

<표 8> 학업성취도에 따른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

(단위: 시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핀란드	0.49	0.36	0.31	0.24	0.15
일본	0.58	0.47	0.51	0.54	0.62
한국	0.85	1.26	1.54	1.79	2.06
미국	1.06	1.05	0.91	0.73	0.51

자료:박소영 외(2009). PISA 2006 정책적 시사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27

□ 여러 방향의 유연한 진로경로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 공교육을 통한 진학·진로교육 접촉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직업의 세계, 상급 학교의 계열 및 전공특성 등 진로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미래 직업 세계의 흐름을 감안하거나 자신의 꿈과 적성을 살리지 못한 채 상급학교에 진학.

- 진로교육에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진로능력 형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교육 활동의 대부분이 교과 및 교실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적성 연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매우 빈약.

※ 국제학업성취도조사 PISA 2006에 참여한 OECD 27개국 진로지도 상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기업체 방문교육은 독일 94.5%, 핀란드 94.0%, 덴마크 93.1%인데 반하여 한국은 44.1%의 학교만이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인의 강의수업 경험도 오스트리아 89.2%, 캐나다 87.4%, 호주 86.8%이지만 한국은 51.8%에 불과 (임언, 2010)

- 진로 및 진학 경로의 선택을 위해서는 학생과 상담자간의 1:1 대면 접촉이 전제되어야 하나 학교현장의 전문상담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학급 담임은 전문성 부족 또는 행정 및

교과시간 부담 등의 이유로 대면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로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사이버 진로상담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프라 구축의 한계로 인해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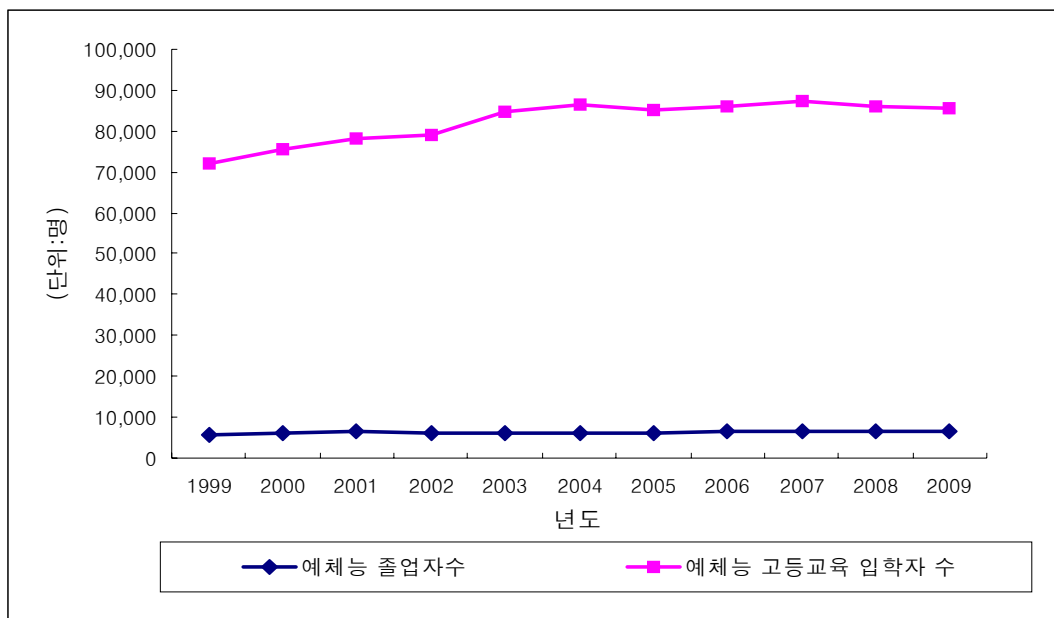
※ 전체 학생수 2,053,159명을 기준으로 볼 때, 사이버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2.2% 남짓에 불과 (제2차 전국진로교육협의회 자료, 2008).

○ 여러 방향의 유연한 진로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진로경로 제공이 필수적이나 예·체능계와 관련한 공교육 기관 등 인프라가 크게 부족

- 예체능계는 특성상 조기부터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의 지속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인프라는 태부족이어서 초·중·등 과정의 예체능 교육은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예체능 고등학교의 졸업자 수는 2009년 현재 6,594명에 불과하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예체능 계열 입학자 수는 85,755명이 넘고 있음. 일반학교의 예체능 학급이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음.

[그림 6] 예체능계열 고졸자 수 및 대입자수 비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해당년도). 교육통계연보.

○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미래에 활용하도록 육성하는 일도 창의성 기반 사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 영재교육은 영재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기여를 가져다 주지만, 아직 우리의 교육체제는 영재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발굴 계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생산성을 갖춘 우수인재로 역할하도록 하기에 역부족임. (김미숙, 2008)

- 학교 다양화 정책의 결과로 과학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사립형 사학 등이 생겨났지만, 이들 기관만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고등학교 수준에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이들 학교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음. (김영철, 2008)

- 특히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초창기부터 정책이 특별히 수학, 과학 분야 등 과학기술분야의 영재양성에 집중 편중되어 타 분야의 영재 선발은 더욱 부실한 상황임.

※ 예술 영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하에 2005년 7월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 개원되어 2008년 9월 한국 예술영재교육원의 미술 분야가 개원되었으며, 2010년 현재에는 음악, 무용, 전통예술 분야에 걸쳐 총 128명에 대해 예술영재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이영조, 2010)

<표 9> 영재교육 수혜자의 분야별 현황

구분	수학,과학		발명, 예술, 정보 등		계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학급수	2,460	2,110	564	473	3,024	2,583
학생수	45,287	37,992	9,766	8,014	55,053	46,006
비율	82.2	82.6	17.8	18.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8. 28

Ⅲ. 학교 진로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하여 수요자의 진로경로를 위주로 한 대입선발제도 강화

○ 입학사정관제는 고착화된 단선적·일방향적 진로경로에 의해 강화된 공급자 중심의 학생선발로부터 학생의 잠재력이나 창의력에 주목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생 선발체제라 할 수 있음.

-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로경로의 유연화·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함. 공급자인 대학이 시험성적에 의해 일률적인 출세우기를 요구하는 한 진로경로의 다변화는 요원함.

※ 한국교육개발원(2009) 조사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에 의견 중 학생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중 60.2%임.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려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한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장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학교 창의성 교육의 핵심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시험점수에 의한 정량적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성적 외 전형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성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는 선발체제임.

※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계발 및 육성하여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개인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 진로교육의 핵심 목표이자 가치이므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음. (고재성, 2010)

○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대학 입시제도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과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단선적·일방향적 진로경로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단순히 입학사정관 채용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선진형 대입전형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기존의 전형 방식이 성적으로 나타난 학습의 결과를 주로 보았다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습과정, 교육여건 및 창의성 등 학생의 잠재력 및 적성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

※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2009)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잠재력, 창의성을 가진 학생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생각하는 답한 사람이 전체의 76.8%로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창의성, 잠재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함으로써 종래의 성적 순의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표 10> 입학사정관제가 잠재력, 창의성을 가진 학생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고교교사	163(20.3%)	460(57.4%)	143(17.8%)	36(4.5%)	802(100.0%)
교육행정가	36(30.8%)	63(53.8%)	13(11.1%)	5(4.3%)	117(100%)
교육관련 연구원	28(28.0%)	51(51.0%)	15(15.0%)	6(6.0%)	100(100%)
학부모	71(15.7%)	222(54.7%)	82(20.2%)	31(7.6%)	409(100%)
합계	298(20.9%)	796(55.9%)	253(17.8%)	78(5.5%)	1425(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의견 조사

※ 2010학년도의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대학수는 66개 대학이며, 학생수는 20,782명(전 과정 참여전형 9,624명, 부분 참여전형 11,158명)으로 이는 전체 대학 학생수 대비 5.4% 수준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진로지도의 근거 강화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강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돌봄’ 기능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것이나 ‘8과목 이해’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등 정책과 함께 진로활동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 일생의 진로경로가 대학입시에 유리한 학력이라는 단일한 기준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학생들은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만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좋은 대학만 가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막연한 기대로 입시를 겨냥한 ‘점수’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교사가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의 진로를 상담할 교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표 11>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2009. 3 기준)

구분	지역교육청 (전문상담 순회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계	전문계		
전체 학교수	180	5,813	3,077	1,493	697	11,080	
배 치 수	공립	304	-	118	40	145	303
	사립	-	-	17	72	83	172
	계	304	-	135	112	228	475
배치율(%)	-	-	4.4	7.5	32.7	4.3	

자료: 이영대(2009).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9)

○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편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진로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제시 및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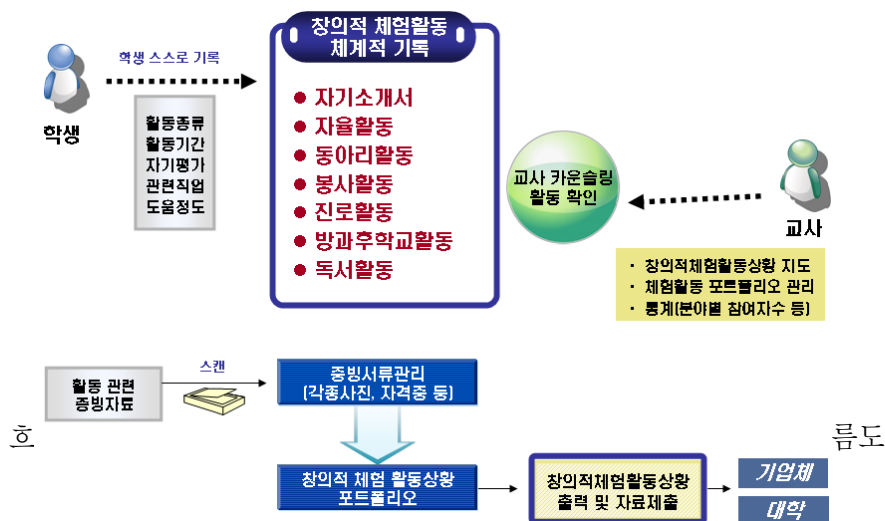
-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이 주어진 시수 동안의 활동에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체성을 탈피하고자 현재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
 - ※ 세부영역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제시하여 학교 안팎의 공간, 방과후 및 주말, 방학 등의 시간을 종합적으로 활용
- 학교의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의 ‘지역자원목록’ 제 공을 명문화
-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중학교 단계에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 고교 단계의 인문계·전문계 및 문·이과 선택 등 중요한 진로결정을 위한 탐색이 이루어 지는 중학교 계의 진로교육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수업의 시수를 확보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종합지원 시스템」은 창의적 체험활동뿐 아니라 독서활동, 방과후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및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체계로서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지원

-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이에 도전하는 과정이 중요함. 종합지원 시스템은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뿐 아니라 독서활동, 방과후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및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누적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지원
 - ※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록 내용 속에는 자기소개서(성장과정과 가족환경, 역경 극복 사례, 사례,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등), 자율활동(자치·적응·행사·체험 활동과 학교 창의적 특색활동에 참가했던 참가했던 경험), 진로활동(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동아리활동(독서활동 등), 봉사활동(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기록 등과 함께 ‘독서활동’도 포함됨.
- 학교생활기록부(NEIS)와 연계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계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추후에 기업의 취업 시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지원시스템의 활성화는 교사와 학생 간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시켜 진로지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 학생기록부는 선생님이 직접 학생의 교과학습내용 중심의 학교생활을 결과를 작성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은 학생이 직접 작성하며, 학생이 입력한 내용을 다시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승인’을 하는 방식.

[그림 7]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입학사정관계 자료와 연계되도록 하여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변화 계기 마련

○ 온라인 종합직업진로정보망(CareerNet)으로서 진로정보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와 함께 다양하고 쌍방향적인 진로경로 개발 및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진로정보센터는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정보, 학과정보 등 대국민 진로서비스 및 정보, 그리고 교사를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현장 진로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2010년 6월 현재, 커리어넷 회원수: 4,108,184명, 커리어넷 1일 평균 페이지뷰: 1,468,000건, 커리어넷 1일 평균 방문수: 128,925건

□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 분야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고등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확대

- 급변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세계와 만나야 함.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 분야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고등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경제단체, 산업별 협의체(SC) 등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별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업의 참여 촉진

○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상시 지원 및 관내 학교 학생들 대상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진로코디네이터(도우미) 선발 활용 정책 추진

- 중학생에 우선 제공 후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인사 등 교육청별 선발 및 연수(30시간) 후 단위학교에 배정·활용

IV. 정책적 실천 방안

□ 정책의 주요 방향

1.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진로 패러다임 : 단선적·획일적 진로경로의 극복

- 탈산업 사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한 가지 방향의 주어진 경로를 추구하는 정형화된 틀을 극복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전문지식 축적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고유하고 독특한 전략을 통해 진로경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진로 패러다임이 요구됨.

2. 학생의 창의성을 위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생선발체제 구축: 공급자 중심 선발체제 극복

- 학생선발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학의 입장 위주로 구조화된 선발 방식이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가 틀을 규정하여 학생의 창의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
-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제해결력, 잠재력 및 창의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학생선발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3.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성 신장 기회 복원 : 시험점수 중심 서열체제 극복

- ‘좋은 대학 = 좋은 직장’의 성공신화를 기반으로 한 대학 진학 중심의 ‘진로 쏠림’이 초·중등교육을 황폐화하고 창의 인재 육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 초·중등 교육이 대학진학에 충력을 경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능력을 쌓고 적절한 진로경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4. 유연하고 능동적인 진로경로 개척을 위한 진로지도 인프라 확충

- 학교 교육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진로적성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매우 빈약.
- 여러 방향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진로경로를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체능 등 다양한 영역의 진로지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 주요 방안의 개요

방안 1. 다양한 진로활동 강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제고

- 1.1 도전과 개척을 장려하는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강화
- 1.2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창의성 교육의 기회 확대
- 1.3 직업 세계 변화의 역동성 및 트렌드를 알려주는 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1.4 원스톱 맞춤형 진로 컨설팅 체제 구축을 통한 학생들의 잠재력 및 창의성 발굴

방안 2. 수요자 중심의 선발체제 구축을 통한 창의성 교육 강화

- 2.1 대입선발에 있어서 수능 점수의 비중 축소
- 2.2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한 대학의 투자 확대
- 2.3 대학-고교 간 교육연계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재 선발문화 강화
- 2.4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체제로 단계적 전환 및 수행평가 강화

방안 3. 여러 방향의 유연한 진로경로 구축을 통해 창의적 탐구활동의 연속성 강화

- 3.1 진학수요 완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공간 확충
- 3.2 영재 교육의 학교급간 연계체계 강화를 통한 창의성 발굴 지원
- 3.3 예술, 체육 영역 진로 교육의 내실화
- 3.4 다문화 가정, 기초학력미달 등 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진로경로 및 창의성 발굴 구조 형성

방안 4. 학생의 창의성 발굴·지원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강화

- 4.1 교사의 직업체험 및 진로역량 강화
- 4.2 학생 잠재력 발굴 및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부담임제 내실화
- 4.3 수업 시간에 진로 교육적 요소 강화
- 4.4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하고 열린 학교 문화 추동

방안 5. 창의성 교육을 위한 외부자원 활용 극대화

- 5.1 교실수업을 외부인사와 협업 형태로 진행
- 5.2 단위 학교에서의 직업진로지도에 학부모 참여 활성화
- 5.3 멘토링 시스템 구축
- 5.4 지역사회 및 기업의 교육기부 촉진

1-1 도전과 개척을 장려하는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강화

- 청소년들이 단선적이고 경직된 진로경로를 수용하거나 일방향적인 진로경로에 편승하기보다 도전정신 및 개척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세계에 도전하도록 진로교육이 장려해야 함.
 - 상급학교 진학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 있는 현재의 진로경로에서 청소년들이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세계에 도전하기는 어려우며 교과목 공부 자체에만 몰두하게 됨.
- 직업체험은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교육이며, 이는 진로교육과 연계되어 장래 유망 직업 등 직업세계의 급속한 변화 및 요구 적성 및 능력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학생들의 직업체험활동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학습 맛보기(Sniff of Learning)’ 혹은 ‘도제체험제(Give It a Try Apprenticeship)’ 등의 이름으로 기업 단기방문 및 작업장에서의 경험, 도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이 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분으로 실시되어 거의 90%의 학생들이 중등학교 기간 중에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은 장래의 고용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 (임지연, 2007)

<청소년 창업체험 사례>

-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방학동안 전국 121개 ‘비즈쿨’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창업캠프’를 실시하고 있음. 프로그램으로는
 - 성공 창업기업가 특강: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 이식,
 - 창업시뮬레이션 :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아이템 선정을 통해 창업 학습,
 - 대학생 멘토링 : 창업선배인 대학생과 멘토-멘티관계 형성 등이 있음.

○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장래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이들¹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

- 직업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교실에서 특강을 들을 수도 있으나, 이 때에는 성공한 직장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인의 사례를 보다 확장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정연순:2009)

1-2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창의성 교육의 기회 확대

○ 2011년부터 운영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창의성 교육을 진작하는 계기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진로활동 역량과 학교 밖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

- 학교급별로 직업체험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입학사정관 전형 요소의 하나로 반영.

○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진로 활동’ 항목을 추가하며,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및 성과를 ‘교육활동’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공시내용을 보강.

- 학교 알리미 공시항목 중 교육활동 요소는 각종 규정, 교육계획 편성·운영, 평가기준 및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활동 등으로 기술하고 있음.

1-3 직업 세계 변화의 역동성 및 트렌드를 알려주는 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래 직업세계 및 직종 트렌드에 대한 별도의 정례적인 보고서를 발간·제공

-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의 이해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소년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일부 선호직업(교사, 공무원, 변호사 및 의사 등 몇몇 전문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

11) 손유미(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2030(직업진로분야)

이러한 직업관은 단선적인 직업경로 설정으로 이어져 대학진학에 무작정 매진하는 결과를 낳음.

- 미래 직업세계 및 직종 트렌드에 대한 별도의 정례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선택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접하게 하고 다양한 직업경로로 유도함.

○ 직업세계의 역동성 및 변화를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게임 형식의 온라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세계 및 직업세계의 역동적 변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함. (손유미, 2007)
- 복잡하고ダイナミック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직업세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함.

1-4. 원스톱 맞춤형 진로 컨설팅 체제 구축을 통한 학생들의 잠재력 및 창의성 발굴

○ 직업획득에 이르는 원스톱 맞춤형 진로 컨설팅 체제 구축

- 진로에 대한 지원은 정보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 맞춤형 진로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업 획득 과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학생, 학부모가 진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지역별 전담 기구를 상설화

○ 미래 지향적 코칭, 목표 도달을 위한 지원 컨설팅

- 이미 존재하는 직업뿐 아니라 미래 개척 가능한 직업에 대해서도 코칭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과정의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학습과정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향후 학습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

2-1 대입선발에 있어서 수능 점수의 비중 축소

- 산업화 시대의 일방향적·단선적 진로경로가 고착화됨으로써 형성된 공급자 중심의 선발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발 학생에 대한 해당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함.
 -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수학능력고사는 시행규모 및 선발에 있어서 비중 등으로 인해 비용이 커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테스트하기 어려운 방식임.
 - 따라서, 향후 정책은 수능고사에 가해지는 입시의 비중은 점차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적 선발 방식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함.
 -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선발방식으로서 축소되는 수능고사 비중에 대응하여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2-2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한 대학의 투자 확대

-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 발굴에 집중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의 학습량보다는 다양한 능력 및 특성에 주목하는 제도로서 창의성 및 잠재력 파악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
 - 따라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해당 대학 및 지원분야에 적합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함.
-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에 의해 실시되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 입장보다 학생수요자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심화 및 인원 확충을 위해 보다 과감히 투자해야 함.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보다 전문화되고 촘촘해질 때 수요자 위주의 입학사정관제가 정

착되며, 창의성 있는 학생들이 보다 명료하게 변별될 수 있음.

○ 입학사정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여 창의 인재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다양한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학의 투자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

- 2009년 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47개 대학의 전임 사정관의 경우, 사정관 네 명 중 한명이 입시 전형 한달 전에 급채용된 것으로 나타남.

<해외 유명 대학 입학사정관제 실시 사례>

◇ UC 버클리대학 : 합격률 23.2%

- 신입생수(4,220명), 입학사정관이 선발하는 인원(100%)
- 지원자(4만4천명), 사정관수(110명), 1인당 심사학생수(약 400명)
- 교외활동, 자기소개서, 성적 등을 2명의 사정관이 교과·비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채점하며 점수 차이가 나면 선임사정관이 재심사

◇ 하버드 대학(2008년) : 합격률 7.7%

- 신입생수(1,667명), 입학사정관이 선발하는 인원(100%)
- 지원자(2만7천명), 사정관수(35명), 1인당 심사학생수(약 771명)
- 사정관 2명이 서류심사 후, 전체 사정관위원회에서 당락 결정

◇ 게이오 대학 : 합격률 23.2%

- 신입생수(6,100명), 입학사정관이 선발하는 인원(168명, 3.2%)
- 지원자(846명), 입학사정관수(18명), 1인당 사정학생수(약 47명)
- 서류심사에 복수의 사정관이 참여

자료: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의 이해와 단위학교 대비방안」, 2009

○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후 관리함으로써 한편으로 선발된 학생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데 근거로 활용.

2-3 대학-고교 간 교육연계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재 선발문화 강화

○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구조 마련

- 선발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대학이 중시하는 평가요소와 기준을 지원자(수요자)들이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해야 함.
- 대학은 고등학교 측에 학생의 고교 생활 중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그를 위해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고등학교는 대학 측의 어떤 선발방식이 고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거나 혼란하게 하는 것인지를 대학에 전달하는 등의 상호 의사소통 수단을 가져야 함.(정광희, 2009)

○ 대학은 고교와 교육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대학과 고교의 협력을 통해 형식적 측면은 가급적 통일된 형태를 기하고 내용적으로 대학별 차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
-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고교진학지도교사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의견교환 및 학생선발의 원칙과 내용을 함께 세우는 자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NACAC¹²⁾와 같이 1년에 한 차례 정도의 전국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등학교 진학교사 등 대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 있음.(김택형 외,2009)

○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상담센터 구축·운영

- 대학 진학자의 궁금증 해소 및 실질적 진로 안내를 위한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상담센터를 구축·운영.
- 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수요원과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예비 진학자를 위한 진학 및 전형 상담, 모의 면접, 조기 진로 적성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학상담 교사 및 학생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 및 컨퍼런스 등도 개최

12)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ling

2-4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체제로 단계적 전환 및 수행평가 강화

○ 현재 중·고교의 내신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료 학생들간 경쟁을 조장하여 창의성 교육을 위한 공간을 크게 잠식하고 있음. 또한 상대평가는, 교사의 교육적 열의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내신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서열화를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동료효과’를 일으키기보다 경쟁상대로서 대하게 되며, 구조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고 있음.

※ OECD에서 시행한 국제비교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협동학습 수준이 최하위권.

<표 12> OECD 협동학습 지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1위
국가	포르투갈 (0.59)	덴마크 (0.50)	미국 (0.35)	뉴질랜드 (0.29)	아일랜드 (0.22)	한국 (-0.85)

주: 협동학습 평가 참여 OECD 국가는 총 21개국임

자료: OECD PISA(2003). Learner for Life

- 예·체능 교과부터 우수/보통/미흡과 같은 절대평가제를 연차적으로 적용

○ 학업 성취 검사 도구로서 수행평가의 적용

- 먼저 서술형·논술형·토론식 평가 위주의 수행평가를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학생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평가로 발전해 나감. (자세한 방안은 제2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자료집 p.129 참조)

방안 3

여러 방향의 유연한 진로경로 구축을 통해 창의적 탐구활동의 연속성 강화

3-1 진학수요 완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공간 확충

○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통한 유연하고 다양한 진로경로 구축

- 지식, 정보, 창의력 등이 경제 및 사회·문화의 변화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창의성 기반의 사회에서는 학령기 학생 대상의 학교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학교 안과 밖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 과정이 필요함.

-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work-to-school)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학령기 학생의 진학수요를 완화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진로경로를 구축함.

○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work-to-school)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 강화

- 현재 대학 입시전형은 성인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수능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등 성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취업경력을 대입시에 반영하는 등 성인이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성인에게 적합한 입학 전형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함.
- 일하는 성인에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임. 따라서 성인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과정 확대 등 성인학습자의 학습시간을 고려한 수업시간의 다양화 필요.
- 학교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부담은 등록금임. 따라서 학자금 대출,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확대 등 등록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등 성인학습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

3-2 영재 교육의 학교급간 연계체계 강화를 통한 창의성 발굴·지원

○ 수학, 과학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영재선발 및 교육을 예체능, 기타 분야 등으로 다양화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영재 학생은 수학, 과학, 정보 등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이들 분야의 영재교육이 전체의 약 90%에 이룸. (서혁, 2009)

<표 13> 분야별 영재교육 현황 자료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언어	예술	체육	인문사회	기타
학급수	621	753	736	60	203	5	76	6	20	103
학생수	11,334	12,544	14,114	1,169	3,173	1,028	1,184	114	366	980
비율(%)	24.6	27.3	30.7	2.54	6.90	2.23	2.57	0.25	0.80	2.13

자료 : 분야별 영재교육 현황 자료 한국교육, 2008

- 언어나 예술영역에서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지만, 수학, 과학을 제외하고 여타 영역에서의 영재교육은 영재성의 개념, 특성, 판별,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초기 단계임. (한기순, 2006).

<해외사례>

- ◇ 미국 : 조기 교육, 소수 공연예술 영재, 전인교육 지향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영재 교육기관 운영
 - ※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 영재교육 실시
- ◇ 이스라엘 : 예술-과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영국 : 미술 분야의 경우 응용 미술 중심으로 타 분야와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한 선발로 전환
- ◇ 호주 : 체육 분야의 경우 상위 2%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

- 창의적 영재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영재에 대해서는 별도 영재학교에서 교육함.

- 저소득층, 기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재학교 수학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 확대
- 일반 학교내에서 영재학급 등을 통한 영재교육 활성화하여 학교내에서 우수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 별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 싱가포르는 일반학교내 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영재교육 운영. 학교에 영재교육 전담교사 배치,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Khong, 2005)

- 학교급별, 교육 영역별, 지원 부처별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연계성 강화

-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영재교육의 종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상급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요소와 하급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내용과 연관을 갖게 함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을 지능 중심에서 창의성과 동기를 함께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 현재 영재교육은 소수엘리트 교육에서 잠재력 발굴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가시적 영재성을 보이는 아동에서 잠재적 능력의 아동의 영재성 발굴에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함

※ 미국은 이미 gifted education의 개념이 talent development의 개념으로 이미 이행하였으며, 영재교육이 많이 연구되고 발달되어 온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보다 많은 다수의 잠재적인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숨겨진 능력 개발에 투자해오고 있음. (한기순,2006).

- 이를 위해서는 영재 선발 전형에 있어 기존의 평가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함. 단기간 실시되는 면접 및 평가 방식 개선되고, 관찰, 추천 형식의 선발이 강화되어야 함.

3-3 예술, 체육 영역 진로 교육의 내실화

-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재능이 모두 다르고, 원하는 교육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문계와 이공계쪽에 치우쳐 있음. 예체능 등 영역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보완 필요
- 현재 정부는 예체능 영역의 공교육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예체능 영역의 수업 특징(도체 수업 등)상 교원 수급을 기존의 교·사대 충원 방식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 창의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 예술교육 정책 추진 현황>

- ◇ 예술 분야를 특화해 가르치는 예술교육선도학교를 오는 2012년까지 1000곳 지정되고, 일반 교과에서도 예술수업기법이 적용되는 등 앞으로 일선학교에서도 예술교육이 보다 강화될 예정임.
- ◇ 특히 ‘연극을 활용한 국어 수업(국어+연극)’ ‘영작 만화 그리기(영어+미술)’ 등 학교마다 예술과 타 교과와의 통합 교육 또한 시도하는 한편,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등에서도 예술과목 시수 확대, 예술 교과교실제 운영 등으로 예술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3-4 다문화 가정, 기초학력미달 등 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진로경로 및 창의성 발굴 구조 형성

-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창의적 교육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 시행이 필요

- 문화적 다양성은 창의성 교육의 중요한 토대임.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다양성 추구에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제고의 분위기 등을 제공.
-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가족 단위 한글·정보화 교육, 일반가정-다문화가정 학부모 1:1 결연 등 정보·상담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 가정환경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창의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창의성 증진에 우호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함.
-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공개방식을 2단계로 축소
 - 창의성 교육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이 충족된 상태를 전제하는 것임.
 - 학력부진 학생들을 진단하여 기초학력 증진교육을 실시하고자 도입된 학업 성취도 평가가 본래의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예:일제고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생 개인에게 4단계(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통지하는 것을 3단계(보통이상, 기초, 기초학력미달)로, 정부 발표는 3단계(보통, 기초, 기초학력미달)에서 2단계(기초이상, 기초학력미달)로만 나타냄.

방안 4 학생의 창의성 발굴·지원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강화

4-1 교사의 직업체험 및 진로역량 강화

- 교사의 방학과 연구년을 직업체험의 기간으로 활용
 -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도 특정한 직업 영역에 직접 뛰어들어 낯선 곳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함. 방학을 이용하거나 직업체험 연구년을 실시하여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교과와 연결된 살아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직업진로지도 교사연수의 강화
 - 직업진로지도 관련 인력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교사연수 프로그램개발·운영(자격연수 등에서는 직업진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학교내 전담 인력에게는 심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함)
 - 집체교육의 방식을 벗어나 직업진로지도 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예: 직업진로지도 교사 지원단 구성·운영)

○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해당교과와 관련된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도입

- 교사가 자기 교과의 각 단원마다 관련된 직업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함. 각 교과의 단원에 밀접한 직업들을 정리하여, 교사가 자기 교과 내용에 가장 밀접한 대학 학과 진학지도와 진로지도를 함께 병행할 수 있음. (문용린 : 2010)

4-2 학생 잠재력 발굴 및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부담임제 내실화

○ 개인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의 흥미 적성 및 학생의 생활 환경 등 제반 사항들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함.

- 창의적체험활동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학생진로지도에 대한 담임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만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담임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부담임의 업무를 진로상담 업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화하여 적시함으로써 복수담임제의 효과를 기대.
- 부담임의 실질적 기능이 강화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담임 교사의 업무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전문성 고양 및 교사와 학생 사이의 면대면 관계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일본의 사례>

◇ 2006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학급붕괴 실태 조사 이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팀 티칭 제도, 교과 담임제 실시, 복수 담임제 실시, 학급당 소수 인원제 등이 실시되고 있음. 복수담임제 실시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사·학생 간 쌍방향의 긴밀한 대화 구조가 정착됨. 효과적인 진로교육과 함께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이지메 학생 수 감소 효과.

○ 학생 잠재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역교육청의 진로정보센터와 지역사회 시설이 공동으로 학생·학교의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

- 지역별 진로·진학 협의회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의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제공 체계 구성
- 상담인력으로는 교과부 상담교사, 학생상담 자원봉사 조직, 학부모 커리어 코치 등을 활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진로관련 상담인력, 청소년 단체 상담전문가 등의 다양한 자원 활용
- 진로·진학 상담 교사 및 외부 상담원 연수 지원

4-3 수업 시간에 진로 교육적 요소 강화

○ 각 수업에서 영역 특수성을 최대한 발휘

- 수업 시간을 학생들이 각 영역 혹은 분야의 특수성, 세계관, 규범, 가치관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 학교에서 각 과목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외부인을 협력교사로 선정하여 수업 시간 일부에 초청,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

4-4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하고 열린 학교 문화 추동

○ 창의력을 신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

- 학교는 미래 창조산업(서비스, 예술, 콘텐츠) 종사자가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으로서 학생들이 이러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함.
- 학생들의 자기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 창의성은 개인보다는 체계, 환경과 관련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아마도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는 해도 운전자만을 기초로 자동차 사고를 설명할 수는 없다.”(칙첸트미하이, 1996. 창의성의 즐거움. 북로드. p57)

5-1 교실수업을 외부인사와 협업 형태로 진행

○ 다양한 통합 수업사례를 참조하여 창의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음.

- 교과과정 내에서 다양한 장르융합 등 창의적 수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미술과 수학, 음악과 국어, 사회와 과학 등을 연계하여 수업하는 등의 교과융합 방식도 고려해봄직 함. (여문환:2010)
- 과학 시간에 빛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진사를 초빙하여 원리와 실제를 아우르는 수업내용을 구성하거나,(김찬호,2008) 음악 시간에 해당 음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부하는 수업 사례 등과 같이 수업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성.(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09)

○ 학교 밖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수업 구성

- 각 수업 내용과 관련된 학교 밖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경제 관련 NGO 단체와 연계하여 창업교실(Company), 생활재정(My Money Business), 진로교육(Success Skill) 등의 수업을 구성하여 진행함. (여문환:2010)
-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초빙하여 다문화사회 교육내용 지도나 이중언어 강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대구시교육청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강사 양성 사례>13)

-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 44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 강사 양성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등 다문화관련 각종 교육의 강사로 활용
- ◇ 이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장점을 학교교육에 수렴할 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5-2 단위 학교에서의 직업진로지도에 학부모 참여 활성화

-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게 생성되는 진로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래 트렌드와 그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학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학생의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과정이 요구됨.
-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서 가장 큰 몫은 학부모의 판단
 - ※ 장래의 진로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나 활동 여부에 대해 초등학생 88.9%, 중학생 87.0%, 일반계고 90.0%, 전문계고 83.5%가 하고 있다고 응답(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 지역별로 학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실질적인 진로정보 가이드 제공.
 - 지자체의 평생교육 기능 및 학부모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 사업으로 진행
 - 지자체의 학부모 진로교육 사업계획을 공모·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
 - ※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의 학부모교육사업과 연계

5-3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사회적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 지원
 -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인적자원의 전문지식 및 창조적 노하우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함.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멘토링 시스템은 절실히 요구됨.

<창조학교의 사례>

- ◇ 창조학교의 멘토링 시스템은 멘토(보호자-교육자)와 멘티(피보호자-피교육자)가 만들어가는 창조바이러스로 멘티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멘토가 돕고 이같은 멘토를 자신의 미래상으로 그리는 멘티들로 구성된 1대 1의 그룹 스터디 방식임.

13)대구시교육청 시교육청 소식 2010.07.07

- 여러 직업현장에 많은 ‘프로’들이 있지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매우 박약한 실정임. 때문에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을 찾아내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

※ 어떤 학생이 요리사에게서 요리를 배운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멘토를 찾아내 접촉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평가할 것인가, 학생과 담임교사와 멘토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을 어떤 틀로 담아낼 것인가 등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함. (김찬호:2008)

5-4 지역사회 및 기업의 교육기부 촉진

○ 지역교육청과 지역사회기관/기업과의 협약 체결

-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지역자원목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 및 기업들과 관내 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상호 협약(MOU)을 체결하여, 학교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약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기관 및 기업들과는 정기적인 진로 협의회를 통해 상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지역사회에서 능력 기부 운동 활성화

- 지역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능력과 시간 기부 운동을 벌이고,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천 분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축제,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성인들 간의 만남의 기회를 인위적으로 확대함.
 - ※ 스티브 잡스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10대 시절, 이웃집에 휴렛팩커드 엔지니어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들로부터 부품도 얻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었음. (말콤 글래드웰, 2009. 아웃라이어. 김영사)

○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 단순 강의식을 탈피하고, 학생들이 각 직업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지역사회기관 혹은 기업 공동으로 개발
- 지역 내 진로교육 전담기구에서 적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임.

참고문헌

- 감사원(20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2010. 04
- 강현민(2004).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선진시설 표준모델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07.08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2010), 2010년도 제 1차 전국진로교육협의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2010). 2010년도 제 2차 전국진로교육협의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09.06.11) 보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국회 권영진 의원(2009), 연도별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 및 학생선발 현황.
- 국회 김세연 의원실(2009), 입학사정관 1인당 학생선발 인원과 전과정 참여비율 현황.
- 국회 박영아 의원실.(2010).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 현황.
- 김기현(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 연구. 보건복지부.
- 김문조(2006). “커리어의 복잡화”, 메가트렌드 코리아, 한길사
- 김미숙(2008),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진(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 국어과 연계교육에 대한 사례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293-315.
- 김승보(2006). 「인적자원개발과 학제개편」. 교육혁신위원회.
- 김승보(2007).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참여 실태와 구조.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고등교육 혁신』. 한국교육개발원.
- 김승보(2008). 수요자중심의 고등교육 체제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승보(2009). 평생학습과 경제적 성과.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숙, 김승보, 장수명
- 김승보(2010).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 미발간.
- 김승보·최동선·김진숙(2009). 중학교용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개정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김영철(2006). 창의적 인재 양성과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성(2007).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 김진숙(2010). “왜 창의인재인가-창의성 교육의 실효성 강화방안”. 제 1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찬호(2008), 교육의 상상력, 지식의 날개.
- 김택형 외 (2009). 한국과 미국의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제 19권, 한국비교교육학회.
- 노경란(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고용정보원.
- 노준석(2009). 영국 창조산업의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포커스. 통권 제1호. 한국콘텐츠 진흥원
- 다니엘 핑크 저(2001). 프리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있다. 석기용 역. 에코리브르.
- 다니엘 핑크(2006). 새로운 미래가 온다. 김명철 역.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대구시교육청 시교육청 소식 2010.07.07
- 대학교육협의회(2009). 입학사정관의 이해와 단위학교 대비방안.
- 문용린(2010). “창의·인성교육 현장적용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주관:한국과학창의재단.
- 박세일, 김승보, 박정수(2007). 『평생학습사회 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소영(2006). PISA 2006 정책적 시사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숙(2006). 미래 승자, 일거리가 있는 사람. 유엔미래포럼.
- 박영숙.(2009). 학교시설의 교육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숙-양운택(2010). 미국교장들이 예측한 미래의 교육. 한국고용정보원 2010 중등교감(1,2,3차) 교육자료.
- 박찬화(2000).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이해. 서울교육 161(2000.12).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09.12.21 보도자료.
- 서혁(2009). 언어·문학 영재성과 국어능력, 교과교육학연구제 13권 1호.
- 손유미 외(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국가청소년위원회.
- 손희권(2009). 신문이 제시한 대학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34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여문환(2010), “창의·인성교육 현장적용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주관:한국과학창의재단.
- 오호영(2005). 공무원채용제도가 노동시장과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2007).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지희(2009). 올바른 진로지도로 사교육걱정 탈출하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이병준(2009). 왜 문화예술교육인가?, 모드니 예술 제 2권,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 이영대(2009).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재(2004).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 임언(2010).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진로교육 실태. 교육정책포럼. 2010.04.29. 한국교육개발원.
- 임정희(2008). 청소년의 진로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지연 외(2007).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학 연구 제 15권.
- 장원섭(2007). 맥락 중심의 평생 진로교육 제안, 진로교육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 정광희(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VI) : 한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 준비과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연순 외(2009). 중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직업교육연구28, 한국고용정보원.
- 조운주 외 (2009).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의 차이와 연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이해 탐색. 한국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 최동선(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병권(2008). 창의성 발현의 10가지 비결 . LGERI 리포트.
- 최인재(2009). 2009 한국 청소년 지로·직업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각년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한국고용정보원(2008)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09).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의견 조사.
- 한국교육개발원(2010). 대학알리미 ‘2010 입학전형료 현황’.
- 한국방송 2009.12.29. 포스코의 창의문화 공간인 포레카.
- 한국생산성본부(2009). ‘중요소생산성 국제비교’ 재구성.
- 한기순 (2006). 국내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영재학회.
- 한상근(2009). 창의적 커리어 패스 형성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행정자치부통계연보(1985-2003). “9급 공무원 학력 변화”
- 홍영란(2008). 국가 인재육성정책의 개념과 발전방향.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후조 외(2008). 학교시간운영의 효율화와 이수과목수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6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홍후조(2008). 학생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2009). 학교 진로교육과 진로정보센터의 역할, 「진로정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niel H. Pink(2001). Free Agent Nation: The future of working for yourself. Warner Books.
DCMS, BERR and DIUS(2008).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Khong (2005) Gifted education in singapore 수월성 교육 및 영재교육 정책 국제 심포니엄 자료
집 RM 2005-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ink, Daniel H. (2005). A Whole New Mind: Moving from the Information Age to the
Conceptual Age. New York, NY: Riverhead Books
Paul Krugman(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73
Ronald J. Burke, Cary L. Cooper(2008). Building more effective organizations: HR management
and Performance in Practice. CambridgeUniversityPress..
Samual Kim(2008). 1st and 2nd Generation Conflict in Education of Asian American
Community, Thesis for Doctor Degree, University of Columbia, Teacher's College
UNCTAD(2008), Creative Economy

www.creat2009.europa.eu

www.schoolinfo.go.kr

토론

이병성 학부모 (학부모모니터단)

김병숙 교수(경기대학교)

김세종 박사(중소기업연구원)

김영곤 과장(교과부진로직업교육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문제와 해결

■ 이 병 성 학부모
(학부모모니터단)

1. 들어가며 - 창의성 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은 과연 가능한가?

필자는 1970년대 초에 학교에 입학하여 즉 공교육을 시작하였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교육환경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 자연, 그리고 노동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효과를 이룩하였다.

학원이 없었기에 자유시간이 길어 친구들과 어울려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식물과 동물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계절마다 변하는 물의 흐름과 지형의 형태를 느낄 수 있었다. 학과 공부도 다양한 자습서와 교재가 없었기에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다.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취직을 하여 돈을 벌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러한 과정이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진로교육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교육의 효과가 우리나라를 빈곤의 국가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바꾼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의성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공교육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학부모로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창의성 교육이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교육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제시되었지만, 매번 그 결과는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교육비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성 교육과 진로교육의 실천 방안 그리고 현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연관시켜 학부모의 입장에서 논의해 보아야겠다.

II. 창의성 교육 실현을 어렵게 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하에서는 창의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해야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녀가 학업성취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자녀 교육에 모든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사교육 종사자들은 학부모들의 구미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반면 공교육은 교육의 질은 정체시킨 상태에서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들의 복지에만 많은 투자를 해왔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공교육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사교육은 내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할 수 없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약 10년 전, 정부가 공교육에 있어서 논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 논술학원들이 번창하였고 1996년 초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추가 했을 때는 영어학원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그리고 여전히 영어 위주의 외국어 학원들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일간 신문을 보면 여러 영어 학원과 교재를 선전하는 광고로 가득하다.

월별 학원비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자녀의 학원비 부담 기간도 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어 학원들은 수강생들을 유아(5세-7세)와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 학원비를 유아기 때부터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새로운 교육 정책이 새로운 사교육이 생겨나게 하고 확산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또 다른 사교육이 생겨나게 하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성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와 교육환경이 함께 변화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III.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제안

1. 대입제도와 고등학교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유아기(6세)에 시작을 하여 청년기(26세)까지 아주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이 다변화 하고 복잡해져서 학습할 것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길어졌다. 우리나라 고교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84%에 이를 정도로 대학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로보다는 진학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o 고등학교를 다변화,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와 자연계 계열의 고등학교는 일정 수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특성화, 전문화된 고등학교로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학생과 고교 졸업 후 취직을 할 학생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인구 5만 명 당 지역에 인문계고 1개교와 자연계고 1개교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경찰고, 소방고, 군사고, 간호고, 미용고 등 특성화, 전문화 고교로 전환시켜, 대학진학으로 인해 과도한 학습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서 입시 위주로 이루어진 편중된 교육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진로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2. 중학교 교육도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가정(4인 기준)의 경우 가정경제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택구입과 자녀 교육비이다. 가정을 이루고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자녀의 교육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가정 수입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자녀 교육비로 지출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자녀 교육비는 자녀가 유아기 때에 높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금 낮아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다시 높아진다.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사교육비에 공교육비(수업료, 보충수업비, 야간자율 학습비, 교복, 교재비 등)가 더해지면서 급속도로 높아진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교육비 부담은 가히 가정경제의 고통이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주요교과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명문대학에 입학률이 높은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과도하게 영어·수학 과목에 집중 되었던 교육을 체험 학습과 인성 교육 그리고 진학과 진로 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화 하여야 한다.

○ 학습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블록 타임제와 교과 교실제를 확대 실시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야한다. 반면 야간 자율 학습과 보충학습은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여유시간을 빼앗고,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공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 복수 담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1반 2인 담임교사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담임들이 역할을 나누어 각각의 학생들을 세밀히 파악하고 지도하도록 해야한다. 가령 영양교사, 보건교사, 행정 교사 등도 담임을 맡도록 할 수 있다.

○ 담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담임의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쌓아 진정한 사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담임 선택에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 과정 3년 동안에 3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면 혹시 생길지 모를 불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평가 항목을 세분화 하여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평가를 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 봉사활동과 독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창의성은 폭 넓은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배경지식은 폭넓은 학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직접체험인 봉사활동과 간접체험인 독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 평가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일회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지속적이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간교사는 수행평가만을 하고 기말평가는 지필 평가를 추가하며 방학 후 개학 시에는 과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 노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는 농장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노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농장에서 채소를 기르고 가꾸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노동을 가치를 느끼도록 한다.

가령 학교 근처의 녹지를 활용하여 몇 개의 학교를 묶어 자연학습장으로 농지를 매입이나 임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수확물을 급식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

○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포용해야 한다.

지역별로 통학이 가능한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기숙사를 만들어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을 수용하여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 공간을 이용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기초자치 단체와 협의를 하여 시설을 확보 하고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3.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육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 영어교육을 축소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에서만큼은 영어 교육은 금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이를 체험학습과 인성교육 위주로 변화시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예체능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태권도를 비롯한 예체능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폭 넓게 실시를 한다. 즉 방과 후 학교로 운영을 하지 않고 정식 교사를 임명하여 정규 과목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 한다. 월요일은 1학년, 화요일은 2학년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즉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치원, 초등 과정에서도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지도 아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교사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평가도 이루어지고 포상도 있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주말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생, 그리고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평가를 기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교육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 주체들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도 국민들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또한 몇 개의 성공 사례만으로는 전체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도 체험을 통한 창의성 인재를 양성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창의성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 교육도 그 축의 일부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 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대학 졸업 후’ 라는 가정 하에서 진로에 대한 연구가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훨씬 이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진로를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해야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고교 졸업이나 중교 졸업으로는 하층민의 고달픈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시대에 뒤지는 교육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졸업을 1-2년 미루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구시대적인 직업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정작 사교육에 대해서는 강한 신뢰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그 신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교과부는 혁신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려 하기보다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을 하여 먼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학부모들도 무조건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버리고 자녀에게 맞는, 자녀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길러주는 현명한 부모로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IV. 맺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흥미와 동기 부여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소속감도 매우 낮아서 성적은 좋고 출석율도 높으나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편이다. 여가시간이 없는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내기란 그야말로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할 여유도 없고 관련 정보도 없다.

결국 사교육 중심의 교육을 공교육 중심으로 변화를 이루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의 성립이 선행 되어야만 창의성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의 교육 개혁은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협력을 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세밀하고 명확하게 교육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자녀의 학습 성취도와 재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자녀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 집중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단순하고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진로와 대학과의 관계는 여러 대안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개방적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육주체들에게 ‘교육은 치열한 경쟁으로 힘들고 고달픈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교육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줄 초석이다.’ 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창의성의 진로교육을 위한 토론

■ 김 병 숙 교수

(경기대 대학원 직업학과)

김승보 박사님의 논문은 창의성의 진로교육에 대한 당위성, 창의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문제점, 방안 등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매우 의미있는 발제였다.

김승보 박사님의 제시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하여 토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와 더불어 몇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창의성의 진로교육은 맥락주의 틀을 도입하여야 한다.

발제자는 새로운 진로패러다임을 대부분 체험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 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은 종전의 이분법적 개념과 위계적 정의인 고용주-고용인, 진로결정자-진로미결정자 등과 같은 인간의 특질을 개념화하는데 사용한 분류의 체계를 타도하여야 하고, 인간의 책임, 의무, 기대 등의 인간적·문화적 요소들, 개인으로서의 인간, 인간의 무의식, 정열과 의지를 등을 더욱 중요시하는 맥락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진로교육 패러다임의 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 맥락주의는 학생 개개인이 갖는 창조성, 기술, 재능에 기초하여 교육함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 민족의 진로유산을 지키고 전수하는 민족의 독창성이 진로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독창성은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갖기 어려운 우리만의 진로유산(예: 젓가락문화에서 오는 손가락재능의 발달, 우리나라 산하가 주는 다양성, 심미성, 건설능력 등의 발달, 정(情)의 문화에서 발달한 드라마산업 및 콘텐츠 발달, 빠르기 문화에서 오는 IT산업의 발달, 6,000년 전의 울산 반구대에서 보여준 교육훈련의 강국,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한글)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족의 독창성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기술과 더불어 능력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요구되는 인재형은 지식과 창의성의 결합으로 전환되고 있다. 훌륭한 교

과운영은 창의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발제자는 영재교육과 연관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창의성은 다양한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다양한 질문들은 그 답이 지금 우리가 분류해본 교과체계의 답을 허무는 통합과 융합된 사고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통합과 융합되어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 접근법(예: 하나의 사건을 지문화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각을 제시)과 통합과 융합의 영역을 담당할 교사의 활용,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교육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위한 단계별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체험은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발제자도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거듭 제시하였다. 체험에서 얻은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미래시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에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은 함양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진로교육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학생분류 방식의 틀에 대한 제고이다.

발제자는 수요자 중심의 선발체제 구축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보다 더 먼저 고려할 것은 기존에 분류방식에 대한 검토이다. 기존의 학생분류는 집단화한 학생들의 능력별 순위를 매기는 일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능력 중에서 적고 많음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학생선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선발된다면 학교에서의 학생분류방식을 새롭게 시도할 것이다.

여섯째, 창의성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고려이다.

특수능력 계발을 위한 각종 활동은 활동대상자들에 대한 분류와 체계화된 교육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초한 창의성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학생들이 창의성이 높는데 표현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스스로 갖고 있는 창의성의 수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식과 창의성을 연계하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같이 학생 개인의 창의성을 자극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곱째, 창의성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발제자나 학교사례를 통하여도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창의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교사, 학교시설 및 장비, 교보재 등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네트워크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도모할 만하다.

여덟 번째, 진로교육의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의 장에서의 진로교육은 명시적이거나 구호적인 면이 많다. 학교내에서 진로교육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투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 김 세 종 박사
(중소기업 연구원)

-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라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뽑을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교교육 간의 미스매치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대한 미충원 사유를 보면 사업체(5,313개)가 1순위로 응답한 것은 ‘취업지원자가 없음’(35.1%)과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 없음’(16.7%)으로 전체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자격을 갖춘 자가 없기 때문’의 비율이 높고,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지원자 없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쪽에서 심각한 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학교교육과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김승보 박사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진로활동 강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생선발체제, 창의성 신장 기회 확대, 진로지도 인프라 확충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교사의 시간부족을 들 수 있다. 과연 교사들이 창의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개발, 교과과정 연구 등에 투입될 시간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교사들의 시업시수 등을 고려할 때 교사들에게 이러한 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예산 부족을 들 수 있다. 과연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창의성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편성여력은 있는지? 상일여자고등학교 사례에서 발표한 것처럼 프로그램 당 학교당 4천만원 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지? 교과부는 향후 창의성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 창의성 교육이 뿌리내리기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다양한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이 가능하도록 학부모의 인식전환, 지역사회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또한 팀 과제에 의한 프로젝트 수업,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필고사 제도 개선 등 학교단위에서 우선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해소하는데 교육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를 소화할 수 없다. 결국 기업과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대학진학과 연계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방향

■ 김 영 곤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1.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란?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회사는 최근 “기술의 Convergence와 Breakthrough Innovation을 리딩할 창의적인 global 인재”를 찾고 있다. 3가지 역량(창의적 인재, 통섭형 인재, 글로벌 인재) 영역과 기본역량과 인성을 함께 갖춘 인재상을 제시한다.(2010.6.10, 제29차 미래인재포럼 발표자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Technology와 고객 insight를 갖춘 창의적 인재, 융·복합 대응 다학제적 교육을 받은 통섭형 인재, 글로벌 감각과 경험을 갖춘 글로벌 인재,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역량을 가진 인재를 말한다. 이러한 인재상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창의 인재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의 주어진 지위에서 삶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희망하는 창의 인재의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대학’을 지향하는 단선적이고 일방향적인 진로경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다. 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술·기능 인력이 대부분이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이며 이들을 대체할 중간 기술인력이 양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노동인력을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기술 강국의 저력은 이들 기술·기능 인력의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는 진로교육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도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교과교육 외에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 ▲기초교육을 강화하여 진로적성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선

II. 진로교육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

PISA 자료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은 진로교육을 모든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비율이 70.9%로 매우 높다. 진로상담교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2.7%로 핀란드(95.6%) 등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교내외 전문가들이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진로교육이 모든 교사의 기본 임무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초·중등학교에 student counsellor, guidance counsellor, group advisor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 1-4명의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년대 이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교육과정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원교원을 진로상담교사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진로교육 확대 필요성과 과원교원 해소 문제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상담교사가 확대 배치되었다. 우리 현실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과원교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들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로 진로교육 전문가들이 양성되어 학교의 진로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조직의 리더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진로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장의 진로교육 인식에 따라 학교에서 활성화가 결정된다고 한다.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CEO 연수 등을 통해 리더의 진로교육 인식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체험중심 진로교육은 창의 인재 선결 조건

우리 교육의 취약한 분야 중 하나가 'learning by doing'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식 위주 시험 준비로 인해 지식이 체화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단순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기가 탄탄한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탕으로 산 지식이 체득되어야 한다.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와 관련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빈약하다. 전체 진로교육 중 체험중심학습은 7.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체험활동도 단순 활동,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직업세계의 역동성·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는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커리어스타트워크 캠페인을 2005년부터 시작하여 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해 5일 이상 직업 체험 및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커리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월부터 학생들이 직접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체 중고생의 10%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2년까지 규모를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IV.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진로교육은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협력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단위에서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간혹 중앙기관간의 중복적 자료발간 등으로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단위에서 시급히 개발하여 보급해야 자료들이 있다.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매뉴얼은 현재 개발 중이며 하반기에는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에서는 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현장지원 중심으로 개편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진로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기업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며,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다.(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

V. 평생교육·교육복지를 지향하는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평생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학교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진로교육 대상은 성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진로교육은 다양한 체험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 이탈청소년, 저소득층 자녀 등이 소외되어 교육의 불평등을 재생산할 여지가 크다. 소위 ‘회전문현상’(교육기회 부족 → 임시직 → 실업 → 빈곤)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제시된 사회적 멘토링 시스템이 이러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면 적극 공감한다.



A large rectangular area defined by a dotted line,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dotted line starts at the top right corner of the book icon and extends horizontally to the right, then vertically down the right side, then horizontally along the bottom, and finally vertically up the left side, forming a complete rectangular frame.



A large rectangular area defined by a dotted line,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dotted line starts at the top-left corner of the book illustration and extends horizontally to the right, then vertically down, then horizontally across the bottom, and finally vertically up to the top-left corner, forming a closed loop.